

궁예(弓裔)의 흥망과 태봉국의 국가형성

Final Typesetting & Semantic QA Edition

신라 말 구조적 위기에서 후고구려·마진·태봉의 국가건설, 광
평성, 미륵왕권, 왕건의 성장과 918년 정변까지 - 2023~2025 양
주 대모산성 목간과 최신 연구를 통합한 사료비판·국가형성론
연구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Research cutoff: 2026년 9월 17일



AI 생성 역사적 상상도 - 실제 초상 또는 고고학적 복
원이 아님.

LIVE TEXT · FULL FONT PROGRAMS · STRUCTURED ACCESSIBILITY · MATERIAL EVIDENCE ·
SCHOLARLY APPARATUS

판본·연구방법·디지털 출판 노트

이 판은 Final Production Master Edition을 바탕으로 제도사 복원, 핵심 출전의 위치 인용, 학술검색용 메타데이터와 장기보존용 출력까지 마지막으로 통합한 최종 마스터다. 핵심 논지는 유지하되 904년 마진 관제의 시대명칭을 정밀화하고, 18관부·9관등의 명칭을 1차사료 기준으로 전수 복원하고, 관부 기능은 직접기록과 비교추정을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역사적 궁예와 후대 사료가 구성한 궁예를 구분하고,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의 선택을 함께 분석한다. A-E 증거등급은 동시대성, 독립사료 일치, 장르·정치 편향, 물질자료 확인, 제도적 연속성의 다섯 기준으로 부여한다.

2023-2025 양주 대모산성 목간, 2025년 백제계 목간 추가 발견, 2026년 9월 현재의 표준적 태봉 서술과 2026년 대모산성 유물 이관 동향을 반영한다. 대모산성은 다시기 유적이므로 모든 출토자료를 자동으로 태봉 자료로 귀속하지 않고 층위·연대·문자양식·출토맥락을 함께 검토한다.

디지털 판은 live text, ko-KR 문서언어, 구조태그, 표의 행·열 머리글 관계, 이미지 대체텍스트, 북마크와 클릭 가능한 링크를 보존한다. 한글·한자는 UnBatang/UnDotum 서체군으로 통일하여 CJK fallback을 제거하고, PDF 생성 단계에서 --full-fonts로 원본 font program 전체를 포함한다. PDF/UA-1 프로파일을 적용하며, 본 판에서는 내부 구조·텍스트·폰트·링크·렌더링 QA를 수행한다. 외부 적합성 인증기관의 별도 인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목차와 부록 순서 교정
- Unicode NFKC 정규화
- 사료의 정확한 원문과 의역 구분
- 핵심 주장에 페이지 하단 각주 추가
- 대모산성 2025 판독 제안과 다시기 유적성 반영
- 2026년 기준 표준서술과 향후 연구 동향 반영
- 904년 마진 18관부·9관등 명칭 전수 복원 및 기능 비교추정표 추가
- 핵심 논쟁의 1차사료 record-level pinpoint citation 보강
- Dublin Core·Highwire·Schema.org scholarly metadata 추가
- 배포용 PDF/UA와 별도 PDF/A-4u 장기보존본 병행

목차

Executive Summary	5
1. 연구방법론과 사료비판	6
1.1 연구 질문과 분석 단위	6
1.2 사실·논쟁·전설의 구분	6
1.3 증거등급 A-E의 형식적 평가기준	6
2. 사료군의 성격과 정치적 기억	8
2.1 『삼국사기』	8
2.2 『고려사』·『고려사절요』	8
2.3 금석문·불교자료·지방전승·고고학	9
2.4 2023-2025 양주 대모산성 목간	9
3. 9세기 말 신라의 구조적 위기	11
4. 출생·신분과 왕실계보 문제	11
5. 승려 궁예와 불교 네트워크	12
6. 기원·양길에서 독립군벌로	12
7. 급속한 영토확장의 원인	13
8. 901년 왕조 창업과 고구려 계승	14
9. 고려→마진→태봉: 국호와 국가정체성	14
10. 철원 수도와 국가전략	15
11. 광평성과 태봉의 중앙행정체제	17
11.1 904년 마진 18관부·9관등 명칭 전수 복원·기능 비교추정	17
12. 태봉은 군벌연합인가 초기 관료국가인가	19
13. 왕권과 호족: 성공공식의 역설	19
14. 왕건·왕릉·송악세력의 편입	20
15. 왕건의 수군·나주 공략과 독자적 명망	20
16. 미륵불 자칭과 종교적 메시아니즘	21
17. 관심법의 다섯 가지 해석	22
18. 초기 궁예와 후기 궁예: 실제 변화인가	22
19. 석총·정치적 숙청과 공포정치	23
20. 강비와 왕자 사건: 가족사인가 왕조정치인가	23
21. 태봉의 경제·재정·조세·동원체제	24
22. 민심 이반의 실체와 한계	25
23. 궁예의 군사능력: 견훤·왕건·양길과 비교	25
24. 궁예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26
25. 궁예 정권의 핵심 엘리트와 권력지도	26
26. 918년 정변의 시간순 재구성	27

27. 918년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왕조교체인가	27
28. 궁예 몰락의 직접적 원인	28
29. 궁예 몰락의 구조적 원인	28
29.1 Elite Coalition Problem	28
29.2 State Capacity Gap	28
29.3 Fiscal-Military Pressure	28
29.4 Succession and Dynastic Security	29
29.5 Military Agency	29
30. 성공의 원인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는가	29
31. 궁예와 왕건: 정치기술과 제도설계의 차이	29
32. 궁예·견훤·왕건: 세 창업자의 비교	30
33. 태봉을 국가형성론으로 분석	30
34. 궁예 몰락은 민중보다 엘리트연합 붕괴였는가	31
35. 궁예의 정신상태를 역사학적으로 다루는 법	31
36. 반사실: 궁예는 몰락을 피할 수 있었는가	32
37. 고려 왕조가 만든 궁예	32
38. 역사적 궁예의 재구성	32
39. 궁예의 역사적 의미	33
40. 궁예 몰락 Causal Map	34
41. 실패 원인 중요도별 종합	35
42. 기존 통설 vs 수정주의적 해석	35
43. 최종 핵심 질문 20개	36
44. 최종 결론	37
부록 0. 2023-2026 물질자료 감사표	38
부록 A. 궁예 연표	39
부록 B. 후삼국 세력지도 설명	40
부록 C. 주요 인물 관계도와 엘리트 표	43
부록 D. 궁예·견훤·왕건 비교표	44
부록 E. 궁예 몰락 원인 매트릭스	45
부록 F. 사료 신뢰도표	46
부록 G. 주요 학설 비교표	47
부록 H. 핵심 용어사전	48
부록 I. 1차 사료 및 온라인 원문 안내	49
부록 J. 현대 주요 연구논문·학술서 Bibliography	50
부록 K. 추가 연구가 필요한 쟁점	51
출판 감사 체크리스트	52

Executive Summary

궁예의 흥망은 “폭군이 악정을 하다가 성군 왕건에게 쫓겨났다”는 도덕극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궁예는 신라 말의 국가붕괴가 만든 정치적 공간에서 기훤·양길 계통의 무장집단을 거쳐 독립세력으로 성장했고, 명주·철원·패서·송악의 서로 다른 지역세력을 결합하여 한반도 중부의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다. 894년 명주에서 3,500명을 14개 부대로 편성했다는 기록은 그의 조직능력을 보여주는 강한 증거이며, 901년 왕조 창업, 904년 중앙관제 설치, 철원 도성 건설은 그가 단순 군벌이 아니라 국가건설자였음을 보여준다.¹

그러나 궁예 정권의 초기 성공공식은 동시에 장기적 약점이었다. 궁예의 군사력과 재정은 여러 장군·호족·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자원에 크게 의존했고, 왕건을 포함한 유력자들은 독자적 지역기반과 명망을 보유했다. 정복단계에서 이러한 분권적 연합은 빠른 팽창을 가능하게 했지만, 국가단계에서 국왕이 행정·재정·군사·종교권위를 중앙집중화하려 하면서 권력분배 갈등이 발생했다.

미륵불 자칭, 관심법, 석총 처형, 강비와 왕자의 죽음 등 후기 궁예의 기록은 왕건 왕조의 정통성 서사에 의해 가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전부 허구라고 볼 근거도 없다. 가장 타당한 해석은 후기 궁예가 실제로 더 개인화되고 강압적인 통치방식으로 이동했으며, 후대 사료가 그 역사적 핵심을 폭군서사로 극적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918년 정변의 핵심은 민중반란이 아니라 지배연합의 붕괴였다.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 등 핵심 군사엘리트가 왕건을 추대했고, 왕건은 태봉의 국가기구를 즉시 장악했다. 따라서 918년은 국가 자체가 무너진 혁명이라기보다 군사엘리트 쿠데타를 통한 최고권력자 교체이자 왕조교체에 가깝다. 고려는 태봉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제도·인적·군사적 자산을 승계했다.²

핵심 결론

궁예의 실패는 국가를 만들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자신이 성공적으로 만든 국가의 지배연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도화하지 못한 실패였다.

1. 『삼국사기』 권50 열전 궁예, 894년 기사(한국사데이터베이스 sg_050r_0020_0130). 명주에서 3,500명을 14부로 나누어 장수를 두었다는 기록이 핵심 근거다.

2. 『고려사』 태조세가 918년 추대 기사(kr_001r_0010_0180).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의 추대와 네 장군의 역할은 강하게 확인되지만, 왕건의 사냥 장면은 창업주 정통성 서사의 전형성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1. 연구방법론과 사료비판

1.1 연구 질문과 분석 단위

본 연구는 궁예 개인의 성격을 독립변수로 놓지 않는다. 분석 단위는 1 신라 말 구조적 위기, 2 군사세력 형성, 3 영토확장과 호족편입, 4 관료제·재정·군사력의 국가화, 5 정통성과 종교정치, 6 지배엘리트의 권력분배, 7 918년 정변으로 이어지는 연쇄다. 개인 선택은 이 구조 속에서 평가한다.

1.2 사실·논쟁·전설의 구분

행정조직·국호·관직·군사원정처럼 날짜와 기능이 구체적이고 제도적 연속성을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반대로 기이한 출생징조, 초자연적 관심법, 극단적인 살해 숫자, 왕건의 완벽한 검양 등은 고전적 왕조교체 서사의 문법과 겹치므로 더 엄격한 사료비판이 필요하다.

1.3 증거등급 A-E의 형식적 평가기준

A-E 등급은 단순한 직관적 평점이 아니라 다음 다섯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부여한다. 동일한 주장이 여러 기준에서 강점을 가질수록 높은 등급을 부여하며, 왕조 정당화나 설화장르의 편향이 큰 경우 감점한다.

평가기준	적용 원칙
동시대성	사건과 자료의 시간적 거리. 동시대 자료일수록 가중치를 높인다.
독립사료 일치	서로 다른 계통의 기록 또는 물질자료가 같은 핵심을 지지하는지 본다.
장르·정치 편향	왕조 정당화, 열전의 도덕화, 설화적 장치 등 편향 가능성을 감점한다.
물질자료 확인	고고학·목간·도성·금석문이 문헌의 제도·공간·연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지 본다.
제도적 연속성	태봉의 제도·인력이 고려 초기에도 이어지는지로 실재성과 기능을 교차검증한다.

궁예 연구의 증거 위계: 개정판의 교차검증 구조

1. 동시대 물질·문자자료

대모산성 목간, 성곽·도성 고고자료

2. 제도·연대가 구체적인 후대 사료

국호·연호·관제·군사원정·관직

3. 후대 서술 속 정치행위·사건

숙청·강비 사건·관심법·민심 표현

4. 설화·도잡·영웅서사

기이한 출생, 예언, 완전한 겸양 서사

원칙: 물질자료가 후대 문헌을 “자동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증거유형이 독립적으로 일치할 때 증거강도가 상승한다.

그림. 본 연구의 증거위계: 동시대 물질자료와 독립적으로 교차검증되는 제도 기록을 가장 강하게 평가한다.

1차사료 창 - 관심법 서사(사료의 요지·의역)

궁예가 왕건에게 역모 혐의를 추궁하면서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한다.

『고려사』 태조세가, 왕건 심문 일화. 아래 문장은 직역 인용이 아니라 사료의 요지이다.

이 표현은 왕건 중심의 창업서사 속에 전해진다. 실제 종교신념·심문·정보망·정치적 연출이 뒤섞였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궁예 관련 핵심 주장 - 사료 신뢰도 감사표

신라 왕족 출신	삼국사기 이설 병기	높음	C	확정 곤란
승려 경력	삼국사기 계열	중간	B/C	가능성 높음
3,500명 14부 편제	삼국사기	낮음	A	조직력 강한 증거
미륵불 자칭	삼국사기	중간	B	핵심은 신뢰 가능
관심법·독심	삼국사기/고려사	높음	C	정치기술로 재해석
강비·왕자 처형	삼국사기	높음	B/C	사건 핵심은 가능
왕건의 완전한 사양	고려사 창업서사	매우 높음	C	정당화 서사 의심
918 군사엘리트 정변	삼국사기·고려사	낮음	A/B	가장 강한 사실

그림 1. 핵심 주장에 대한 사료 신뢰도 감사표. 증거등급은 본 연구의 분석도구이며 절대적 진실척도가 아니다.

주요 출전 연구

- 『삼국사기』 권50 열전 궁예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고려사』 태조세가 - [918년 왕건 추대 기사](#)
-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2007; 이재범, 『후삼국시대 궁예정권연구』, 2007.

2. 사료군의 성격과 정치적 기억

2.1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1145년 고려 인종대에 완성되었다. 궁예 사망 약 2세기 뒤의 고려 관찬사서이므로 왕건 왕조의 정통성이라는 정치적 환경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궁예전은 신라 말의 반란지도자가 어떻게 성장했고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기록을 제공하지만, “폭군 궁예-현명한 왕건”이라는 후대의 도덕적 대비가 편집과 서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2.2 『고려사』·『고려사절요』

15세기 조선에서 편찬된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시기적으로 더 늦지만 고려의 사초·실록 계통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왕건의 태봉기 활동과 918년 즉위과정을 상세하게 전한다. 다만 창업주가 왕위를 탐하지 않았고 신하와 백성의 강권으로 즉위했다는 구성은 전형적인 정당화 서사이므로 사실 그 자체보다 정치적 기억의 생산과정까지 분석해야 한다.

2.3 금석문·불교자료·지방전승·고고학

궁예를 직접 기록한 동시대 금석문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신라 말 사찰과 승려, 지방호족, 지역경제를 보여주는 금석자료는 간접적 맥락을 제공한다. 철원도성의 지형·성곽 연구는 문헌과 독립된 물질자료로서 특히 중요하다. 반면 지방설화는 사실재구성보다 “궁예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기억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기억사 자료로 다루어야 한다.

주요 출전 연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국사기」·「고려사」 관련 항목
- 허의행·양정석, 「태봉 철원도성의 고지형과 구조 분석 연구」, 2021.

2.4 2023-2025 양주 대모산성 목간: 궁예 연구의 새로운 물질자료

2023년 양주 대모산성 원형 집수시설에서 “政開三年丙子四月九日”이라는 날짜가 포함된 목간이 확인되었다. 정개 3년은 916년에 해당하므로, 이 자료는 태봉의 연호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동시대 물질자료다. 양주시의 최초 공개에서는 8면 8행, 123자 가운데 102자가 판독되었다고 발표되었고, 인물명과 대룡(大龍)을 향한 제의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설명되었다.³

2024년 같은 집수시설에서 목간 4점이 추가로 출토되었다. 일부에는 結·負·斗·刀·合·分 같은 토지·곡물·수량 단위가 기록되어 있어 측정·물자관리 또는 행정문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4점 모두를 곧바로 “태봉의 재정장부”로 부르는 것은 증거를 넘어서다. 출토 맥락과 문자양식, 개별 목간의 연대와 성격은 계속 검토되어야 한다.

2025년 연구에서는 1호 목간의 재판독과 이두 사용 가능성, 제의적 성격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2023년 최초 공개 당시 판독된 일부 인명·문구가 후속 연구에서 달리 읽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본 개정판은 초기 판독을 확정사실로 고정하지 않는다. 확실한 층위는 ‘916년 정개 연호의 동시대 사용’, ‘문자행정·제의를 존재’, ‘측정단위가 포함된 추가 목간의 존재’이며, 세부 판독과 행정적 기능은 연구 중이라고 구분한다.

또한 2025년 15차 발굴에서는 5세기경 백제 목간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모산성이 10세기 태봉기에만 사용된 장소가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점유된 군사·교통 요충지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모산성 출토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태봉 자료로 자동 귀속해서는 안 되며, 출토층위·집수시설 맥락·연대·문자양식·동반유물을 종합해 개별 자료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⁴

2.4.1 2025년 재판독: 확정독법과 제안독법을 구분하기

권인한(2025)은 1호 목간의 여러 글자와 이두표기에 새로운 판독·해석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음 표는 이를 확정문으로 굳히지 않고 “제안독법”으로 표시한다.⁵

위치	2025년 제안독법	학술적 취급
I면	[如][律]令 가능성	주술·제의를 맥락을 강화하는 제안. 추가 판독 필요.
II면	{爲在} 합자, 「中」 가능성	이두 표기의 이른 사례 논의와 연결되나 제안독법으로 취급.

3. 양주시 2023년 대모산성 목간 공개자료; 권인한, 「태봉국의 이두를 찾아서」, 『木簡과 文字』 35 (2025), 141-170. 세부 판독은 후속 연구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

4. 양주시, 「양주 대모산성, 지난해에 이어 국내 가장 오래된(最古) 목간 출토」, 2025-11-21. 15차 발굴에서 5세기경 백제시대 목간 4점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5. 권인한, 「태봉국의 이두를 찾아서 - 양주 대모산성 목간1을 중심으로 -」, 『木簡과 文字』 35 (2025), 141-170. 제안독법과 전체 문맥의 불확실성을 함께 명시한다.

위치	2025년 제안독법	학술적 취급
III면	「民」, {在(<等)} 합자 등	문맥 복원에 중요하지만 문장 전체의 해석 불확실성 큼.
V면	[兵]·[滅], ‘太[川]’ 등	군사·제의 맥락과 연결될 가능성. 확정적 행정문서 해석은 유보.
VI-VII면	{者} 합자, “[賈]□[俸]” 등	향후 2-5호 목간과의 비교가 필요.

2023-2025 양주 대모산성 목간: 태봉 연구를 바꾼 물질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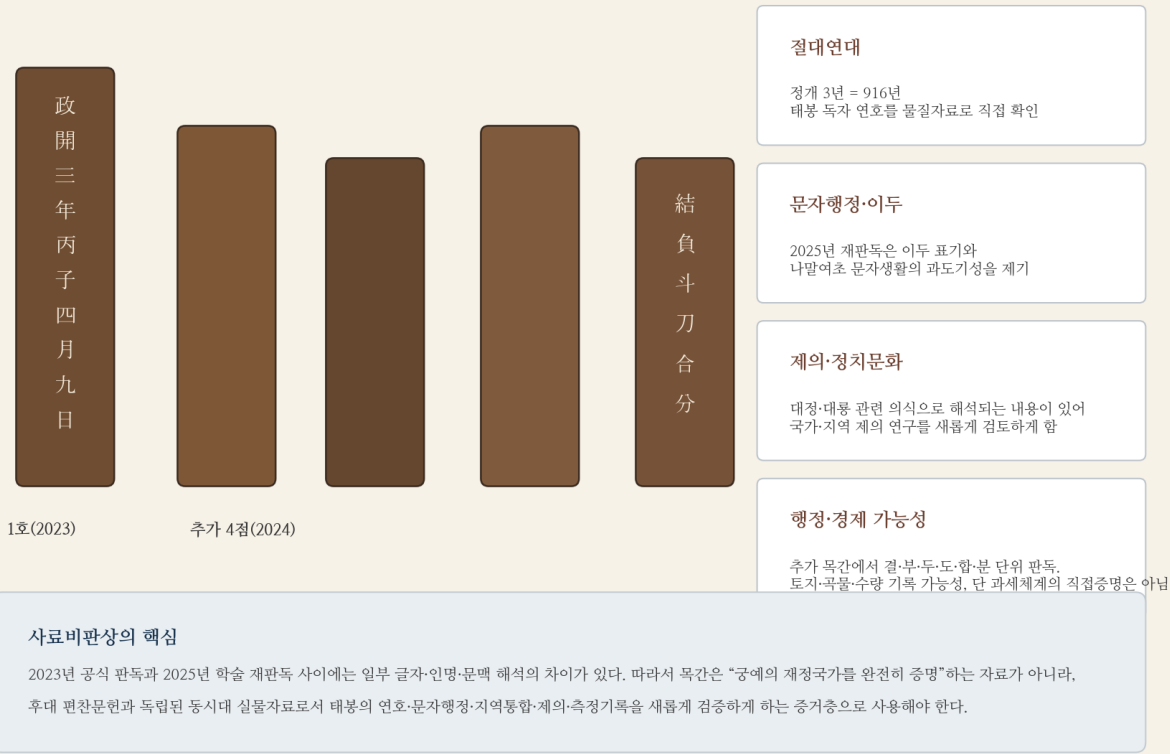


그림. 양주 대모산성 목간이 태봉 연구에 제공하는 새로운 증거층. 실제 목간 사진의 복제가 아니라 연구내용을 요약한 정보도식이다.

연도	자료 연구	비교적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직 조심해야 할 것
2023	정개 3년 명문 목간 공개	916년 태봉 연호의 현장 사용, 문자기록, 제의적 맥락	일부 인명·구문의 최초 판독
2024	집수시설에서 목간 4점 추가	측정단위·수량표기의 존재, 문서행정 가능성	모든 목간의 정확한 연대와 태봉 귀속, 완전한 세목체계의 존재
2025	재판독·이두·문서성격 연구	10세기 문자생활과 이두 사용 논의의 확대	세부 어휘·인명·행정기능에 대한 단일한 확정독법

새 물질자료 출전

- 양주시, 2023년 대모산성 목간 공개자료
- 양주시, 2024년 추가 목간 공개자료
- 연합뉴스, 2024-11-28 추가 목간 보도 - 연대·성격에 대한 학계 이견 포함
- 손환일, 「양주 대모산성 新출토 목간 자료 소개」, 2025
- 김병조·고재용, 「양주대모산성 원형집수시설 출토 목간」, 2025
- 권인한, 「태봉국의 이두를 찾아서」, 2025

3. 9세기 말 신라의 구조적 위기



그림 2. 신라 말 중앙질서의 붕괴를 표현한 시 역사적 상상도. 실제 당시 장면의 복원은 아니다.

궁예가 등장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신라 중앙국가의 약화였다. 왕위쟁탈과 귀족정치가 반복되면서 중앙의 명령이 지방에 미치는 범위가 줄고, 성주·장군·호족이 자체 병력과 경제기반을 강화했다. 조세수취가 흔들리면 중앙은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군사력이 약해지면 다시 지방통제가 붕괴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농민반란과 유민의 증가도 독립변수가 아니라 이 과정의 일부였다. 중앙의 보호와 수취가 동시에 약화되면서 사람들은 지역의 군사적 보호자에게 의존했고, 지방지도자는 세금·치안·군사동원을 직접 수행하기 시작했다. 즉 “국가의 기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분산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궁예는 혼란의 원인보다 결과였지만, 동시에 혼란을 새로운 질서로 전환한 정치적 기업가였다. 수많은 지방 무장지도자 가운데 왕조와 관료기구를 만든 인물은 극소수였다. 따라서 구조적 위기와 궁예 개인의 조직능력을 결합해서 설명해야 한다.

4. 출생·신분과 왕실계보 문제

궁예의 출생에는 현안왕의 아들이라는 설, 경문왕의 아들이라는 설, 왕실 서자설 등이 전한다. 『삼국사기』 자체가 이설을 병기한다는 점은 왕실계보를 확정할 수 없게 한다. 왕실에서 살해될 뻔했으나 유모가 구했다는 이야기는 동아시아 영웅전승에서 반복되는 탄생모티프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궁예가 신라왕자였다”는 명제는 C 수준의 논쟁적 주장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 여부와 정치적 효용은 구분해야 한다. 동시대에 궁예가 왕실과 연관된 인물로 인식되었다면, 이는 단순 군벌이 왕을 칭하는 데 중요한 정당성 자원이 될 수 있었다. 신라 질서를 공격하면서도 왕권이라는 정치 형식 자체는 신라 왕실의 상징자본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출전·연구

- 『삼국사기』 권50 궁예 출생기사 - 원문/번역
- 『제왕운기』 관련 궁예 계보 전승.

5. 승려 궁예와 불교 네트워크

궁예가 어린 시절 세달사에서 승려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그의 후일 종교정치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다. 신라 말 사찰은 단순 종교공간이 아니라 토지·노동력·교육·문서작성·교통·지역인맥이 결합된 사회기관이었다. 승려는 여러 지역을 이동할 수 있었고, 지방사회의 정보와 불만을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궁예의 승려경력은 이후 세 가지 능력과 연결될 수 있다. 첫째 불교적 종말론과 미륵사상이라는 정치언어, 둘째 대중 앞에서 말하고 의례를 연출하는 카리스마, 셋째 지역사찰과 사람을 잇는 네트워크다. 다만 궁예가 고도의 교학을 갖춘 전문학승이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

궁예의 미륵정치를 단순한 광신으로 보는 해석은 이 배경을 놓친다. 그에게 종교는 개인신앙이면서 동시에 신라의 기존 왕권과 다른 정통성을 창조할 수 있는 언어였다.

6. 기원·양길에서 독립군벌로

궁예의 초기 경력은 “왕자-왕”의 직선적 서사가 아니라 하급 추종자에서 독립군벌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는 죽주의 기원 집단에 참여한 뒤 양길의 휘하에서 군사적 경험을 쌓았다. 892년경 양길이 궁예에게 병력을 주어 독자적 공격임무를 맡겼다는 기록은 그가 이미 신뢰받는 현장지휘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⁶

894년 명주에 들어가 3,500명을 14개 부대로 편성하고 장수를 배치했다는 기록은 특히 중요하다. 숫자의 정확성보다 핵심은 병력의 조직화다. 궁예는 전투뿐 아니라 병력을 단위화하고 지휘관계를 설계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형성 이전 단계의 군사행정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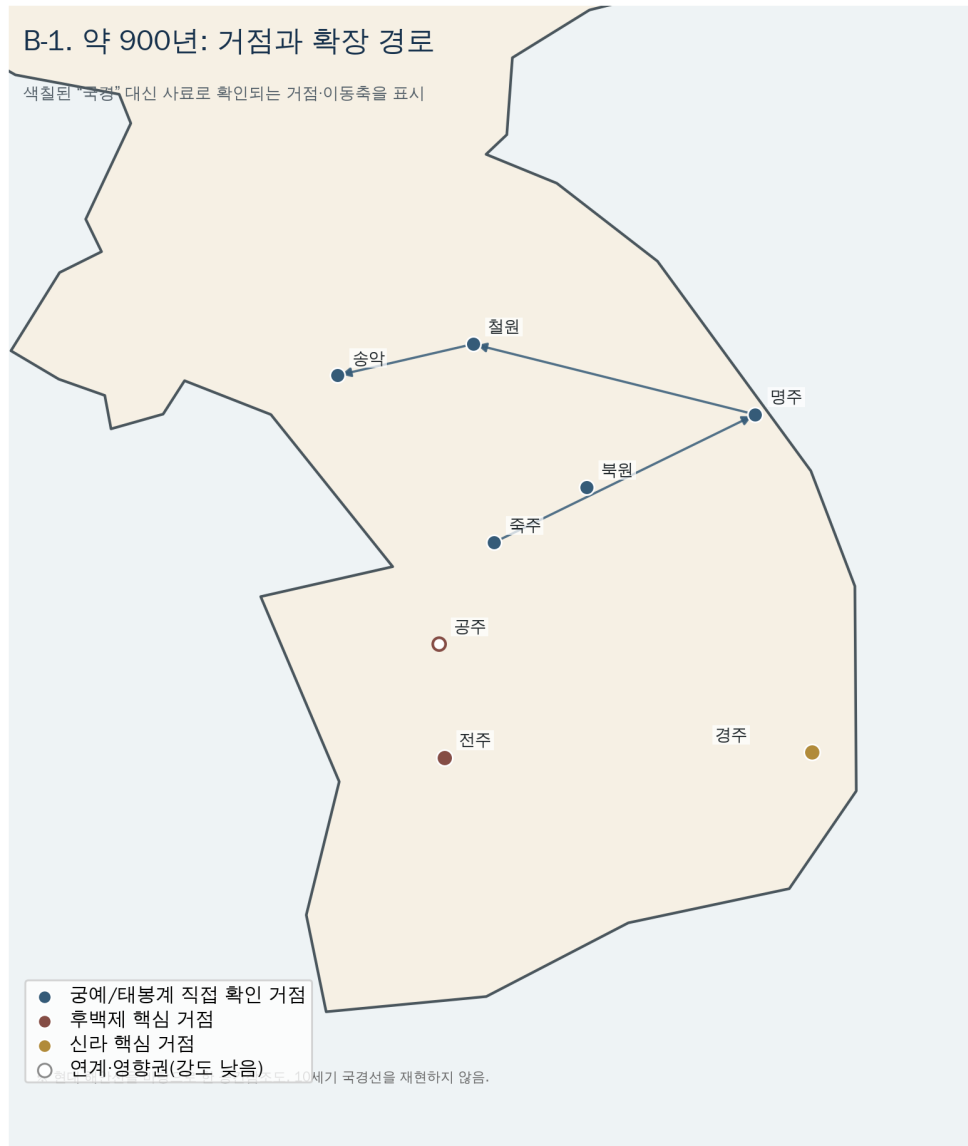
양길이 궁예의 성장을 위협으로 보고 공격했지만 궁예가 이를 격파하면서 양자의 관계는 상하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되었다. 궁예의 초기 성공은 “무력 + 조직 + 현지세력 포섭 + 경쟁자보다 빠른 독립”의 결합이었다.

주요 출전·연구

- 『삼국사기』 권50 궁예 - 양길 휘하 기사
- 명주 3,500명·14부 편제 기사

6. 『삼국사기』 권50 궁예전의 양길 휘하 기사(sg_050r_0020_0110). 궁예에게 병력을 맡겨 동쪽 지역을 공격하게 했다는 서술이 독자 지휘경험의 핵심 근거다.

7. 급속한 영토확장의 원인



약 900년: 현대적 국경색칠을 피하고, 사료로 확인되는 거점·확장 경로와 연계 가능성을 구분한 공간참조도.

공예의 영토확장은 개인적 군사재능과 구조적 환경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신라 중앙정부가 지방의 성과 군현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고, 지방호족은 더 강한 보호자와의 제휴를 필요로 했다. 공예는 정복과 협상을 병행하며 지역세력을 편입할 수 있었다. 명주 진입을 두고 현지 유력세력과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부지역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했다. 철원·송악·패서·한강권을 연결하면 내륙군사로서와 서해 해상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경쟁군벌이 각 지역에 분산된 상황에서 공예는 이 연결축을 빠르게 확보했다.

따라서 공예의 성공을 “시대가 좋았다”거나 “천재적인 군사재능” 중 하나로 환원할 수 없다. 구조가 기회를 만들었고, 공예는 그 기회를 조직적 군사력과 연합정치로 실제 권력으로 전환했다.

8. 901년 왕조 창업과 고구려 계승

궁예는 901년 왕을 칭하고 고려라는 국호를 사용한 것으로 전한다. 오늘날 이를 후고구려라고 부르는 것은 후대의 편의적 명칭이며, 궁예 자신이 “후고구려”를 공식 국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그가 단순 군벌에서 왕조창업자로 전환한 사건이다.⁷

1차사료 창 - 901년 왕 칭함

五年, 弓裔稱王.

『삼국사기』 신라본기 효공왕 5년 기사.

짧은 연대기 문구 자체는 궁예가 901년에 왕을 칭했다는 핵심 연대를 강하게 지지한다. 국호와 이념의 세부는 다른 사료와 함께 읽어야 한다.

고구려 계승은 매우 효과적인 정치메시지였다. 궁예의 세력권에는 옛 고구려 영역과 연결되는 중북부 지역이 포함되었고, 신라 중앙에 대한 거리감이 강한 주민에게 “새로운 국가이지만 오래된 정통성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를 제공했다. 과거를 불러와 현재의 권력을 정당화한 것이다.

『삼국사기』가 궁예에게 신라에 대한 고구려 멸망의 원한을 말하게 하는 대목은 그대로의 발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고구려 계승의 정치적 의미 자체는 국호와 이후 고려의 계승을 통해 상당히 강하게 확인된다.

주요 출전·연구

· 『삼국사기』 권50 궁예 901년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9. 고려→마진→태봉: 국호와 국가정체성

궁예가 고려에서 마진, 다시 태봉으로 국호를 변경한 이유는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이름의 변화와 동시에 연호·관제·수도·왕권이 변했다는 사실은 국호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901년 고려가 고구려 계승이라는 과거의 정통성을 강조했다면, 904년 마진은 독자적 중앙관계와 왕조제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 시기와 겹친다. 911년 태봉은 고구려라는 특정 역사국가를 넘어 궁예 자신의 독립적 왕권을 더 강하게 표방한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⁸

그러나 “궁예가 고구려 계승을 버리고 완전히 보편제국을 추구했다”는 식으로 단정하면 증거를 넘어선다. 국호의 어원 자체가 논쟁적이므로 본 연구는 국호변경을 왕권과 국가정체성의 변화가 반영된 지표로 보되, 하나의 사상체제로 과잉해석하지 않는다.

7.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및 신라본기 효공왕 5년 기사(sg_050r_0020_0280 등). 오늘날의 “후고구려”는 구별을 위한 후대 명칭이며 당시 국호 자체와 동일하지 않다.

8. 홍창우, 「궁예의 ‘(後)高麗’ 국호 제정과 ‘一統三韓’의 지향」, 『신라사학보』 59 (2023), 275-315; 『삼국사기』 권50 궁예전의 901년 왕칭·국호 기사(sg_050r_0020_0280) 및 904년 마진 개칭 기사. 국호 변화의 사상적 의미는 편집사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2023 연구동향 - ‘(후)고려’와 일통삼한

홍창우(2023)는 국호 변천을 단순한 ‘고구려 계승 포기’로 읽는 해석을 재검토하고, 『삼국사기』의 편집방식과 ‘일통삼한’ 지향을 함께 검토한다. 이 해석은 중요한 수정주의적 제안이지만 학계의 단일한 합의로 다루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호 변화가 정체성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은 인정하되, 궁예가 어느 시점에 고구려 계승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홍창우, 「궁예의 ‘(後)高麗’ 국호 제정과 ‘一統三韓’의 지향」, 『신라사학보』 59, 2023, 275-315.

10. 철원 수도와 국가전략



그림 4. 태봉의 수도 철원을 표현한 시 역사적 상상도. 실제 발굴 복원도가 아니다.

철원은 군사·교통·정치에서 여러 장점을 가졌다. 중부내륙에서 북방과 한강권, 송악 방면을 연결할 수 있고, 신라와 후백제의 핵심지역에서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었다. 농업과 교통의 정확한 규모는 더 많은 고고학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궁예가 장기적 왕도를 구상했다는 점은 도성의 규모와 구조 연구에서 뒷받침된다.⁹

9. 허의행·양정석, 「태봉 철원도성의 고지형과 구조 분석 연구」,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54-2 (2021), 38-55. 철원도성의 공간구조는 제한된 조사조건을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



태봉의 공간전략: 철원-송악-양주-명주-청주-나주의 거점 및 육상·해상 연결망을 표시했다. 정확한 국경선은 주장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는 송악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송악은 왕룡·왕건 세력의 본거지였다. 궁예가 철원에 독자적 왕도와 궁궐을 건설하는 것은 유력호족의 지역에 의존하는 군주에서 벗어나 “왕 자신의 공간”을 만드는 행위였다. 이는 중앙 집권화와 공간정치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도건설은 비용을 수반한다. 전쟁을 계속하면서 대규모 도성·궁궐을 건설하면 노역과 물자수요가 급증한다. 궁예 말기의 경제부담 기록은 승자의 비판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급속한 수도건설이 재정과 농업에 압력을 주었을 가능성은 높다.

주요 출전·연구

· 허의행·양정석, 「태봉 철원도성의 고지형과 구조 분석 연구」, 2021.

11. 광평성과 태봉의 중앙행정체제

904년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고친 궁예 정권은 광평성을 최고중앙관서로 두고 그 아래 18개 관부와 9관등을 설치하였다. 911년 국호가 태봉으로 바뀐 뒤에도 이 관제는 계승·재편되었다. 따라서 904년의 제도정비를 정확히 표현할 때에는 “태봉 관제”라는 후대의 포괄명칭과 당시 국호 “마진”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병부·재정·형률·외교·문서·공역·물자관리 등 기능분화된 중앙기구의 존재는 궁예 정권을 단순 군벌집단으로 볼 수 없게 한다.¹⁰

1차사료 창 - 904년 마진 관제

始置廣評省.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후고구려 관제」 및 권50 궁예전 904년 기사. 전체 관부·관등 목록은 직관 관련 기사에 보존되어 있다. 광평성 아래에 18관부가 열거되고, 이어 정광·원보·대상·원윤·좌윤·정조·보윤·군윤·중윤의 9관등이 기록된다. 기능 일부는 사료가 직접 설명하고, 나머지는 『삼국사기』가 제시한 고려 대응기관과 신라·고려 관제 비교를 통해 복원한다.

11.1 904년 마진 중앙관제: 18관부·9관등 명칭 전수 복원과 기능 비교추정

다음 표는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후고구려 관제」를 기준으로 904년 마진 중앙관제의 명칭을 전수 제시하고, 기능은 직접기록과 비교추정을 엄격히 구분한 것이다. 사대·식화부·장선부·주도성은 사료가 기능을 직접 설명한다. 그 밖의 관부는 사료가 고려의 대응기관을 병기하고 있어, 그 대응관계와 신라·고려 관제의 기능을 이용해 주된 업무를 추정한다. 따라서 “기능 직접기록”과 “비교를 통한 복원”을 구분하였다.

관부	주요 기능 / 대응기관	복원 근거
병부(兵部)	군사·무선·군무·의위·우역 계통	신라·고려 병부 비교에 의한 복원
대룡부(大龍部)	호구·공부·전량; 고려 창부에 대응	『삼국사기』의 대응기관 + 기능 비교
수춘부(壽春部)	예의·제향·조화·교빙; 고려 예부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
봉빈부(奉賓部)	빈객·사신 접대; 고려 예빈성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
의형대(義刑臺)	법률·사송 형정; 고려 형부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
납화부(納貨府)	재화·창고; 고려 대부시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
조위부(調位府)	중앙·지방 전국 출납과 회계; 고려 삼사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
내봉성(內奉省)	국가 행정의 총괄적 실무; 고려 도성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고려 초기 계승자료
금서성(禁書省)	경적·문서·축소; 고려 비서성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
남상단(南廂壇)	토목·영선; 고려 장작감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
수단(水壇)	수리·관개·천택; 고려 수부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

10.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후고구려 관제」(한국사데이터베이스 sg_040r_0030_0590)는 광평성과 18관부, 정광부터 중윤까지 9관등을 한 기사에 열거한다. 같은 DB 주석은 이 관제가 무태 원년(904), 당시 국호 마진 시기에 설치되었음을 명시한다.

관부	주요 기능 / 대응기관	복원 근거
원봉성(元鳳省)	왕명·사명 작성과 문한; 고려 한림원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고려 계승자료
비룡성(飛龍省)	왕실 수레·말과 말 사육; 고려 태복시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
물장성(物藏省)	장인·기술·공예품·진귀물 관리; 고려 소부감에 대응	대응기관 비교·고려 계승자료
사대(史臺)	여러 지역의 언어·역어 학습	사료가 기능을 직접 기록
식화부(植貨府)	과실나무 재배	사료가 기능을 직접 기록
장선부(障繕府)	성곽·성황의 수리	사료가 기능을 직접 기록
주도성(珠淘省)	각종 기물의 제작	사료가 기능을 직접 기록

광평성 자체는 18관부를 총괄하는 최고중앙관서로 별도 계산하였다. 광평성의 장관은 광치나(匡治奈), 차관급으로 서사(徐事), 실무 관으로 외서(外書)가 기록된다. 고려 태조가 광평성을 비롯한 태봉 관제를 상당 부분 계승했다는 기록은 제도연속성을 뒷받침한다.

904년 9관등과 후대 태봉기 9관품의 구분

구분	9단계 명칭	해석
904년 마진 관등	정광(正匡) · 원보(元輔) · 대상(大相) · 원윤(元尹) · 좌윤(佐尹) · 정조(正朝) · 보윤(甫尹) · 군윤(軍尹) · 중윤(中尹)	『삼국사기』가 궁예가 제정한 관호로 직접 열거. 고려 초기에도 일부 명칭이 계승됨.
태봉기 재편 관품	대재상(大宰相) · 중부(重副) · 태사훈(台司訓) · 보좌상(輔佐相) · 주서령(注書令) · 광록승(光祿丞) · 봉조판(奉朝判) · 봉진위(奉進位) · 좌진사(佐眞使)	『고려사』가 별도의 태봉 제도로 전함. 904년 9관등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왕권강화 과정의 관품 재편 가능성을 보여 준다.

제도사 해석 주의: 광평성을 곧바로 “호족대표회의”로 단정하는 건해는 현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호족세력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되, 고려 초기 광평성 연구에서는 국왕 휘하의 공식 정부기구라는 해석이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분화된 공식 정부기구 + 초기 연합정치의 가능성**이라는 이중모형을 채택한다.¹¹

제도사 핵심 원문·기준자료

-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후고구려 관제」
- 『고려사』 권76 백관1 상서성 관련 기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봉」(2026-09-03 수정)

광평성을 초기 호족연합의 권력공유 장치와 연결하는 건해는 궁예정권의 연합적 기반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가설이다. 다만 광평성을 곧바로 호족대표회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고려 초기 광평성 연구에서는 국왕 휘하에서 백관을 총괄하고 정치를 평의한 공식 정부기구라는 해석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후기 궁예의 왕권강화를 분석할 때에는 “공식 중앙정부의 강화”와 “엘리트 권력공유의 축소 가능성”을 별개의 변수로 다루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고려 초에 상당 부분 이어졌다는 점이다. 918년 왕건은 국가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았다. 궁예가 만든 행정조직과 인적자원을 재사용했다. 따라서 태봉은 실패한 반란국이 아니라 고려 국가형성의 제도적 전사(前史)다.¹²

11.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후고구려 관제」(sg_040r_0030_0590); 『고려사』 권76 백관1 상서성조와 권77 백관2 문산계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평성」은 호족 대변기구설과 국왕 휘하 정부기구설의 논쟁을 소개하며, 최근에는 후자의 해석이 지지를 얻는다고 정리한다.

12. 이재범, 「궁예·왕건정권의 역사적 연속성에 관한 고찰」, 『사림』 24 (2005), 101-128. 태봉과 고려 초기의 인적·제도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연구다.

주요 출전·연구

- 『삼국사기』 권50 궁예 904년 관제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이재범, 「궁예-왕건정권의 역사적 연속성에 관한 고찰」, 2005.

12. 태봉은 군벌연합인가 초기 관료국가인가

정답은 시기에 따라 둘 다다. 궁예의 초기 세력은 장군·호족·지역군대를 연결한 군사연합이었지만, 904년 이후 중앙관료제와 왕도, 연호, 독자 국호를 갖춘 국가로 이동했다. 문제는 군벌연합의 사회적 기반이 관료국가가 생겼다고 즉시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의 외형과 실제 역량을 구분해야 한다. 중앙관청을 설치했다고 해서 지방의 병력·토지·조세가 모두 중앙으로 직접 이전된 것은 아니다. 호족과 장군은 여전히 지역사회와 병력을 통제했고, 중앙은 이들을 관직과 포상으로 묶어야 했다. 따라서 태봉은 “관료기구를 가진 연합왕국”에서 “더 직접적인 중앙집권국가”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었다.

이 과도성이 태봉의 창조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설명한다. 궁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대모산성 목간은 적어도 일부 지방공간에서 문자기록·연호·측정행위가 작동했음을 새로 보여준다. 다만 중앙 재정의 규모와 지방행정의 침투 정도, 통합군의 수준은 여전히 충분히 복원되지 않는다.

13. 왕권과 호족: 성공공식의 역설

궁예 초기의 성공은 여러 지역세력을 포용하는 데 있었다. 명주·철원·패서·송악의 지배자들은 궁예에게 군사·식량·정보·지역통치 능력을 제공했고, 궁예는 그들에게 관직·안전·확장기회를 제공했다. 이것은 상호의존적 계약이었다.

그러나 국왕에게 성공은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 정복이 완료될수록 전리품을 통한 보상이 줄어들고, 안정적 세금과 법·군사통제가 필요해진다. 왕이 이를 중앙화하면 기존 파트너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즉 궁예를 성공시킨 정치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강한 국가를 만들기 어렵고, 그것을 해체하면 자신을 지지한 세력을 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핵심 역설: 궁예를 성공시킨 카리스마 + 군사동원 + 지방세력 연합이, 국가가 성장한 뒤에는 왕권강화의 가장 큰 제약으로 변했다.

14. 왕건·왕릉·송악세력의 편입



그림 5. 궁예와 왕건의 정치적 긴장을 표현한 AI 상상 이미지. 실제 초상이 아니다.

왕릉과 왕건의 송악세력은 궁예정권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다. 송악은 지역호족의 토지·상업기반뿐 아니라 서해 해상로와 연결된 전략적 중심지였다. 궁예는 이 세력을 흡수함으로써 내륙 중심의 군사력에 해상능력을 결합할 수 있었다.

왕건은 궁예 휘하에서 성곽건설, 기병지휘, 수군지휘, 나주공략, 중앙정부의 시중 등 군사와 행정의 핵심경험을 모두 축적했다. 그는 “처음부터 반역을 꿈꾼 경쟁자”라기보다 궁예가 성공적으로 발탁하고 성장시킨 장군이였다.¹³

바로 이 점이 궁예의 딜레마다. 국가확장을 위해서는 왕건 같은 유능한 대리인에게 큰 권한을 줘야 했지만, 권한이 커질수록 그는 독자적 지역기반·군사명성·관료경력을 가진 대체 지도자로 변했다. 이는 전형적인 principal-agent problem이다.

15. 왕건의 수군·나주 공략과 독자적 명망

왕건의 나주 방면 활동은 단순한 지방전투가 아니었다. 후백제의 서남해 교통망과 배후를 위협하면서 태봉의 전략적 범위를 크게 넓혔다. 해상작전은 지역 호족·선박·물자·항로정보의 결합을 필요로 했으므로 왕건에게 독자적인 네트워크와 명망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¹⁴

913년 왕건이 시중에 오른 것은 군사적 명성이 중앙정치 권력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914년 다시 수군지휘로 이동한 이유는 논쟁적이다. 왕건이 궁정의 위협을 피하려 했다는 서술도 있고, 궁예가 성장한 왕건을 중앙에서 견제했을 가능성도 있다. 두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일치했을 수도 있다.¹⁵

이 시기부터 왕건은 궁예에게 “없애기 어려운 부하”가 된다.

13. 『삼국사기』 권50 궁예전의 왕건 관련 기사 및 『고려사』 태조세가. 왕건의 군사·행정 경력은 서로 다른 시점의 기록을 종합해 재구성해야 한다.

14. 『삼국사기』 권50 903년 나주 관련 기사(sg_050r_0020_0430); 강봉룡, 「왕건의 제해권 장악과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 『역사학연구』 75 (2019), 35-60.

15.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913년 왕건 시중 기사(sg_050r_0020_0480)와 914년 직책 이동 기사(sg_050r_0020_0490). 중앙 최고직과 수군 지휘 사이의 이동은 정치적 긴장과 전략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5 연구동향 - 청주·나주와 지방세력

최근 연구는 청주 사민, 나주 경략의 시기와 주체,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기록차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태봉의 지방통합이 단일한 중앙명령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역세력과 군사지휘관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이는 왕건의 나주 활동을 ‘개인의 영웅적 원정’으로만 읽지 않고 태봉의 중앙-지방 네트워크 속에서 재배치하게 한다.¹⁶

홍창우, 「궁예정권과 ‘지방’과의 관계 문제」, 『신라사학보』 65, 2025, 41-75.

왕건을 숙청하면 송악과 해상네트워크, 군사적 신망을 잃을 위험이 있고, 그대로 두면 대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주요 출전·연구

- 『삼국사기』 권50 왕건 관련 기사 - [903년 나주 관련](#)
- [913년 시중 관련](#)
- 강봉룡, 「왕건의 제해권 장악과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 2019.

16. 미륵불 자칭과 종교적 메시아니즘

『삼국사기』는 궁예가 자신을 미륵불이라 하고 두 아들을 보살이라 했으며, 승려들을 행차에 동원하고 독자 경전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이 세부의 전부가 동시대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궁예가 불교적 카리스마를 왕권 정당성과 결합했다는 큰 틀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¹⁷

1차사료 창 - 미륵 자칭

善宗自稱彌勒佛.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궁예가 미륵과 자신을 연결했다는 핵심은 비교적 분명하지만, 후대 사료가 그의 종교정치를 폭군서사의 일부로 배열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륵은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구원자라는 성격을 갖는다. 신라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낡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언어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다. 궁예가 신라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륵은 새로운 왕권의 종교적 근거로 매우 유용했다.

문제는 종교적 정당성이 통치의 대체물이 될 때다. 왕이 정치적 최고권력자이면서 종교적 구원자까지 자처하면 비판자는 정책 반대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질서의 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는 엘리트 협상공간을 줄이고 왕권을 개인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16. 홍창우, 「궁예정권과 ‘지방’과의 관계 문제 - 청주·나주 관련 연구성과의 정리를 중심으로 -」, 『신라사학보』 65 (2025), 41-75.

17. 『삼국사기』 권50 궁예전의 미륵·석幢 관련 기사(sg_050r_0020_0440); 박광연, 「동아시아의 왕즉불 전통과 미륵불 궁예」, 『사학연구』 110 (2013), 87-122.

주요 출전 연구

- 『삼국사기』 권50 미륵·석총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박광연, 「동아시아의 왕즉불 전통과 미륵불 공예」, 2013.

17. 관심법의 다섯 가지 해석

관심법을 “미친 왕의 독심술”로만 이해하면 정치사적 의미를 잃는다. 첫째 실제 불교적 수행 개념, 둘째 궁예 자신의 종교적 확신, 셋째 신하 앞에서의 정치적 퍼포먼스, 넷째 밀고·심문·정보수집의 결과를 초자연적 능력으로 포장하는 통치기술, 다섯째 고려 이후의 괴기화 가능성을 구분해야 한다.¹⁸

1차사료 창 - 관심법 서사(사료의 요지·의역)

궁예가 왕건에게 역모 혐의를 추궁하면서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한다.

『고려사』 태조세가, 왕건 심문 일화. 아래 문장은 직역 인용이 아니라 사료의 요지이다.

이 표현은 왕건 중심의 창업서사 속에 전해진다. 실제 종교신념·심문·정보망·정치적 연출이 뒤섞였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왕이 “네 마음을 알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을 왕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누가 밀고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하는 실제 정보망의 범위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비밀경찰이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심법 전승을 충성심 테스트와 공포정치의 언어로 읽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왕건에게 역모를 추궁했다는 『고려사』 일화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폭군이 충신을 의심했으나 왕건이 지혜로 살아남았다는 구조는 창업주 영웅서사와 잘 맞는다. 그러나 궁예가 왕건을 실제로 경계했을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다.

주요 출전 연구

- 『고려사』 태조 즉위 전 기사 - [궁예의 왕건 추궁 기사](#)

18. 초기 궁예와 후기 궁예: 실제 변화인가

사료는 초기 궁예를 유능하고 포용적인 지도자로, 후기 궁예를 의심과 숙청에 빠진 군주로 대비한다. 이 대비는 왕건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변화를 편찬자의 발명으로 볼 수도 없다. 국가의 성격 자체가 군벌연합에서 중앙집권 왕조로 이동했기 때문에 궁예의 행동방식도 달라질 구조적 이유가 있었다.

¹⁸ 『고려사』 태조세가의 왕건 심문 일화(kr_001r_0010_0150)는 고려 창업주의 위극복 서사 속에서 전한다. 관심법의 정치적 의미와 일화의 문학적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초기의 정치적 목표는 세력을 넓히는 것이므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권한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후기의 목표가 안정적 왕권·수도·관료제·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변하면 같은 엘리트가 경쟁자와 제약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포용과 후기 억압의 대비는 도덕적 타락이라기보다 국가형성 단계의 변화와 함께 읽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궁예의 성격이 갑자기 바뀌었는가”가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와 위험구조가 바뀌면서 어떤 통치수단을 선택했는가”다.

19. 석총·정치적 숙청과 공포정치

승려 석총이 궁예의 불교설법을 비판하다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은 후기 궁예의 종교정치와 숙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구체적인 처형방식은 검증하기 어렵지만 사건의 역사적 핵심이 사실이라면, 왕이 종교적 권위에 대한 비판도 정치적 반역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숙청을 단순한 개인적 잔혹성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권력집중의 기능 때문이다. 유력 장군·호족·종교인이 독자적 영향력을 갖는 체제에서 숙청은 중앙집권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숙청은 정보의 질을 떨어뜨리고 엘리트의 생존불안을 키운다. 충성심을 높이기보다 “먼저 배신해야 살아남는다”는 유인을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후기 태봉의 숙청은 단기적 왕권강화와 장기적 연합붕괴가 동시에 진행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 강비와 왕자 사건: 가족사인가 왕조정치인가

915년 부인 강씨와 두 아들을 궁예가 죽였다는 기록은 폭군서사의 가장 강렬한 장면이다. 사건 자체와 구체적인 잔혹 묘사를 분리해야 한다. 왕실 내부에서 중대한 제거가 있었을 가능성은 부정하기 어렵지만, 동기·방법·대화의 세부 는 후대 문학적 가공의 가능성이 높다.¹⁹

정치적으로는 매우 큰 사건이다. 왕비와 왕자는 단순 가족구성원이 아니라 왕위계승과 혼인연합의 중심이다. 이들을 제거하면 궁예가 자신의 왕조 후계체제를 손상시켰고, 강씨 계통과 연결된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위협했을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가 맞다면 궁예 몰락의 “정신적 이상행동” 증거라기보다 왕조연합과 승계제도의 붕괴로 분석하는 편이 낫다.

주요 출전 연구

· 『삼국사기』 권50 915년 강씨·왕자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비교보기](#)

19. 『삼국사기』 권50 궁예전 915년 기사(sg_050r_0020_0510). 가족 살해의 핵심 전승과 구체적인 처형방식의 신뢰도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21. 태봉의 경제·재정·조세·동원체제

태봉 경제는 여전히 연구자료가 제한적인 영역이다. 2023~2024년 양주 대모산성 목간은 916년 정개 연호와 측정·수량 단위를 포함한 문자자료를 제공하여 기록·물자관리 능력의 직접 단서를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완전한 세율표·토지대장·중앙 재정장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조세체계와 재정규모를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궁예가 과도한 세금을 매겼다”는 문장을 그대로 사실화하기보다 국가건설의 비용구조와 증거수준을 구분해야 한다.

1차자료 창 - 왕건 즉위 뒤 경제 비판(사료의 요지·의역)

궁예 시기의 토목·동원 때문에 백성이 농사 시기를 잃고 생활이 곤궁해졌다는 취지로 새 왕조의 교서가 전한다.

『고려사』 태조 원년 8월 교서의 취지. 직역 인용이 아니라 요약이며, 정변 직후의 공식 정치문서라는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궁예 시기의 동원부담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지만, 정변 직후 새 왕조가 전임자를 비판하는 공식문서라는 정치적 성격 때문에 그대로 중립적 통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2026 개정 - 새 물질자료가 재정·행정 평가에 미친 수정

태봉의 완전한 세율표·토지대장·국가재정장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모산성 추가 목간에는 토지·곡물·수량과 관련된 단위가 나타나므로, 이제 “직접 재정자료가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 더 정확한 표현은 ‘측정·기록·물자관리의 직접 단서는 생겼지만, 중앙 차원의 조세제도와 재정규모는 여전히 복원하기 어렵다’이다.

국가역량	새 자료가 주는 수정	증거수준
문자행정	916년 명문과 후속 목간으로 직접 증거가 크게 강화됨	A/B
독자연호의 집행	‘정개 3년’의 현장 사용이 물질자료로 확인됨	A
측정·물자관리	結·負·斗·刀·斛·分 등 단위가 직접 단서 제공	B
중앙 재정체계	세율·징수주기·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장부는 없음	C/D
지방통치	양주라는 전략지역에서 문자기록이 작동했다는 점은 중요하나 통치주체·범위는 세부 검토 필요	B/C

태봉은 전쟁을 계속하면서 군량과 말, 무기, 성곽을 유지해야 했고, 철원에 새로운 왕도와 궁궐을 건설했으며, 기병별 중앙관료제를 운영해야 했다. 이 모든 사업은 곡물·노동력·운송·공물·전리품을 필요로 한다. 영토팽창이 둔화되면 전리품보다 정규적인 수취에 더 의존해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왕건 즉위 직후의 문서는 궁예의 토목공사와 백성의 농업부담을 비판한다. 이것은 새 왕조의 정당화 문서라는 한계가 있지만, 신생전쟁국가의 동원비용이라는 구조적 조건과 방향이 일치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부담을 B/C 수준으로 보되 정확한 규모는 확인 곤란으로 남긴다.²⁰

주요 출전 연구

· 『고려사』 태조 즉위 초 교서 관련 - [국가동원·백성부담 관련 기사](#)

22. 민심 이반의 실체와 한계

왕조교체 사료에서 “민심이 떠났다”, “백성이 새 왕을 기뻐했다”는 표현은 매우 흔하다. 따라서 이를 현대적 여론조사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 왕건의 즉위를 정당화하려면 궁예를 버린 민심과 왕건을 환영한 백성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궁예가 정변 이후 대규모 지지군을 즉시 조직하지 못하고 도주했다는 기본 사실은 중요하다. 정권이 수도의 핵심군사력과 정치적 지지를 상당 부분 상실했음을 뜻한다. 다만 일부 지역에 궁예와 관련된 저항·전투 설화가 남아 있어 “전 백성이 한순간에 등을 돌렸다”는 공식서사는 과장일 수 있다.

따라서 민심악화는 보조적 변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권을 실제로 무너뜨린 메커니즘은 민중봉기가 아니라 군사엘리트와 행정핵심의 이탈이었다.

23. 궁예의 군사능력: 견훤·왕건·양길과 비교



그림 6. 후삼국기의 군사동원을 표현한 AI 역사적 상상도.

궁예는 초기 육상전과 병력조직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양길의 세력을 넘어 독립했고, 중부지역의 여러 성을 빠르게 장악했다. 다만 왕건과 비교하면 수군과 해상네트워크 운영은 왕건에게 더 많이 의존했다. 견훤은 서남부의 강력한 육군과 후백제 지역기반을 갖고 있었다.

궁예의 군사적 약점은 전술보다 지휘체계의 정치성에 있었다. 장군이 독립적인 지역기반과 병력을 보유하면 국왕이 전략을 결정하더라도 실제 동원은 지휘관의 충성에 달린다. 918년 군사엘리트의 집단이탈은 태봉의 전쟁기계가 궁예 개인에게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한 증거다.

20. 『고려사』 권1 태조세가, 태조 원년 8월 11일 조서(한국사데이터베이스 kr_001r_0020_0030_0030). 궁예의 토목동원·농사철 상실·기근·질병을 비판하지만, 정변 직후 새 왕조의 공식문서라는 정치적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궁예는 “전쟁에서 약해서” 몰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사적으로 너무 빠르게 성공했기 때문에 군사엘리트가 막대한 자원과 명망을 축적했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흡수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24. 궁예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궁예의 목표는 시기별로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생존과 독립, 중기에는 신라의 중부영역을 장악하고 고구려계승 왕조를 세우는 것, 후기에는 태봉을 독자적 중앙집권 왕조로 만들고 후삼국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불교적 이상국가”가 최종 목표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미륵사상은 정치적 비전과 정당성의 언어였지만, 관료제·군대·수도·조세를 구축한 행동은 매우 현실적인 국가건설이었다. 종교이념과 현실정치가 서로 배타적이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반도 통일이 명시적이고 일관된 최종목표였다고 단정할 직접 증거는 부족하지만, 왕조창업과 영토확대, 후백제와의 경쟁을 고려하면 최소한 신라를 대체하는 광역왕조를 추구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25. 궁예 정권의 핵심 엘리트와 권력지도

태봉 권력구조와 918년 엘리트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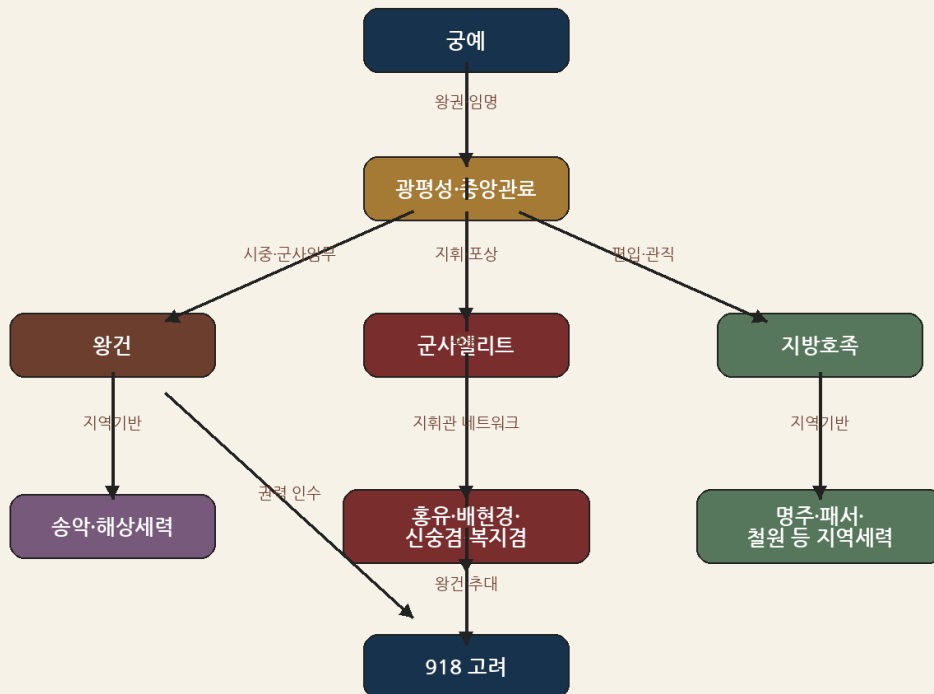


그림 7. 태봉의 권력구조와 918년 엘리트 이동을 단순화한 분석도.

궁예 정권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개인 명단보다 자원구조를 보아야 한다. 궁예는 왕권과 임명권, 종교적 정당성을 가졌고, 광평성과 중앙관료는 행정·문서·재정을 담당했다. 왕건과 여러 장군은 군사력과 전공을, 지방호족은 토지·지역인맥·자체병력을 보유했다.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의 정확한 출신과 세력규모는 모두 명확하지 않지만, 918년 이들이 왕건 추대의 핵심이 되었다는 사실은 태봉의 군사핵심부가 궁예에게서 이탈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변 이후 이들이 최상위 공신으로 포상된 것도 그 역할을 확인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왕의 권한이 공식적으로 최고라고 해도 실제 국가는 엘리트들의 협력 위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궁예의 몰락은 “한 명의 부하가 배신했다”기보다 핵심 네트워크의 연결방향이 궁예에서 왕건으로 바뀐 사건이다.

26. 918년 정변의 시간순 재구성



그림 8. 918년 군사엘리트 정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상상도. 구체적 장면의 사실적 복원은 아니다.

기본적인 시간순서는 다음과 같이 복원할 수 있다. 첫째, 궁예 후기의 숙청과 엘리트 불안이 누적된다. 둘째, 왕건은 송악·수군·중앙관료 경력을 통해 독자적 명망을 확보한다. 셋째,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이 왕건에게 궁예 폐위를 제안한다. 넷째, 왕건이 이를 수용하고 군사세력이 궁성 및 수도의 핵심권력을 장악한다. 다섯째, 궁예는 조직적인 대규모 반격 없이 도주한다.

왕건이 처음 거부했다는 기록은 창업군주의 도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그가 정변을 장기간 사전기획했는지, 제안을 받은 뒤 합류했는지는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왕건은 완전히 수동적이었다”와 “모든 것을 사전에 지휘했다”는 양극단 모두 피해야 한다.

군사적 충돌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중요하다. 실제 국군의 지휘권이 궁예에게 남아 있었다면 수도에서 장기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컸다. 정변이 빠르게 성공했다는 사실은 군사엘리트와 행정핵심의 상당 부분이 이미 왕건 쪽으로 기울었음을 시사한다.

주요 출전 연구

- 『삼국사기』 권50 918년 정변 - [비교보기](#)
- 『고려사』 태조 즉위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7. 918년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왕조교체인가

혁명은 일반적으로 지배자 교체를 넘어 정치·사회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뜻한다. 918년에는 최고권력자와 왕조명이 바뀌었지만, 행정기구·군사엘리트·영토·다수의 관료가 상당 부분 이어졌다. 따라서 사회혁명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

궁성 또는 수도의 핵심 군사엘리트가 현직 군주를 제거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웠다는 점에서는 쿠데타의 성격이 강하다. 동시에 궁예의 태봉에서 왕건의 고려로 왕조의 정통성과 국왕이 바뀌었으므로 왕조교체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정의: 918년은 “군사엘리트 쿠데타를 통한 왕조교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 표현은 정변의 방식과 결과를 동시에 설명한다.

28. 궁예 몰락의 직접적 원인

순위	직접 원인	증거	설명
1	군사엘리트 집단이탈	A/B	정변 실행능력을 제공. 궁예의 지휘체계를 사실상 붕괴시킴.
2	왕건이라는 대안 지도자	A/B	정권교체 뒤 권력공백을 줄이고 엘리트 결집점 제공.
3	숙청과 생존불안	B/C	장군·관료가 궁예 아래 남아 있을 비용을 높임.
4	왕권 개인화·신성화	B/C	정책갈등을 협상보다 충성/반역의 문제로 전환.
5	경제·동원 부담	B/C	사회적 정당성과 지방협력 약화 가능성.

직접 원인은 918년의 행동을 설명한다. 이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군사엘리트의 집단이탈과 왕건의 존재다. 숙청·경제부담은 이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 선행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정권이 즉시 무너지지는 않는다.

29. 궁예 몰락의 구조적 원인

29.1 Elite Coalition Problem

정복단계의 다지역 연합이 국가단계에서 권력분배 갈등으로 변했다. 궁예는 연합을 유지하면 중앙집권이 어렵고, 중앙집권을 밀어붙이면 연합을 잃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29.2 State Capacity Gap

영토팽창의 속도가 행정·재정·군사통합의 속도를 앞질렀다. 중앙관제가 설치되었어도 지방사회의 실질자원은 여전히 호족과 장군을 거쳐야 했다.

29.3 Fiscal-Military Pressure

전쟁·군대·도성·궁궐·관료제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국가동원 비용이 커졌다. 정규 재정기반이 충분히 안정되기 전에 지출이 빠르게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29.4 Succession and Dynastic Security

장비와 왕자의 제거 기록이 사실의 핵심을 반영한다면 왕조승계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엘리트에게 궁예 이후의 질서가 불확실해졌다.

29.5 Military Agency

장군들이 국왕의 봉급만 받는 관료가 아니라 병력·지역연계를 가진 독립적 행위자였다는 점이 918년 집단이탈을 가능하게 했다.

30. 성공의 원인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는 상당 부분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궁예의 성공은 빠른 군사동원, 유력 장군의 자율성, 지방호족과의 유연한 제휴, 고구려·미륵이라는 강한 카리스마적 정당성에서 나왔다. 이 요소들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장기국가는 예측 가능한 법·조세·관료승진·군사통합·왕위계승을 요구한다. 카리스마와 전리품 중심의 연합을 제도적 국가로 바꾸려면 권력공유 규칙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궁예는 중앙관료제는 만들었지만, 엘리트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계약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

따라서 궁예의 비극은 성공과 실패가 서로 반대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다. 급속한 성공이 강한 장군과 호족, 큰 동원비용, 강한 개인적 왕권을 동시에 만들었고, 이 요소들을 재조정하지 못하면서 성공의 자산이 붕괴의 자산으로 변했다.

31. 궁예와 왕건: 정치기술과 제도설계의 차이

항목	궁예	왕건
출신 기반	승려경력·이동 군사집단에서 상승	송악 유력호족·해상 네트워크
세력확장	정복 + 현지세력 편입	군사 + 협상 + 혼인 + 포섭
호족관리	초기 포용, 후기 긴장·숙청	지속적 포섭과 혼인정치
왕권관	후기 개인화·신성화 경향	초기 연합왕권, 점진적 강화
종교정책	미륵과 왕권의 직접결합	불교 후원·정당화, 국왕=미륵 방식은 약함
군사관리	유능한 장군에게 큰 자율성	장군 포섭과 공신체제, 이후 점진적 통합
정통성	고구려 계승→독자 태봉	고려 계승 + 후삼국 통합
승계·혼인	자료 제한, 왕실 내부위기 기록	광범위한 혼인동맹과 다수 왕자 문제
정치적 결과	918년 엘리트 쿠데타	연합을 유지하며 통일, 이후 왕권 과제 지속

왕건의 성공을 결과론적으로 이상화해서는 안 된다. 왕건 역시 호족의 자율성, 후계문제, 공신세력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차이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관리방식이었다. 왕건은 단기간에 모든 지방권력을 없애기보다 혼인·관직·성씨·포상을 통해 비용을 분산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왕조질서 안에 편입했다.²¹

승자 편향 방지

왕건의 연합관리 역시 비용 없는 해법은 아니었다. 918년 즉위 직후부터 지역 엘리트의 반발과 반란이 나타났다. 광범위한 혼인과 공신·호족 포섭은 단기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초기 고려 왕권이 지방세력에 의존하는 구조를 장기간 남겼다. 따라서 ‘왕건의 선택은 항상 합리적이고 궁예의 선택은 항상 실패’라는 결과론적 비교를 피해야 한다.

32. 궁예·견훤·왕건: 세 창업자의 비교

기준	궁예	견훤	왕건
핵심지역	중부·북부	서남부	송악·서해
사회적 기반	이동 무장집단+중부 호족	서남부 군사·지역세력	호족·상인·해상·태봉 관료군
정통성	고구려+미륵	백제	고려+통일
강점	빠른 군사·제도 혁신	강한 육군·지역기반	연합관리·수군·정치포섭
주요 취약성	엘리트연합 붕괴	왕실후계 분열	호족 의존과 후계다원성
정권전환	쿠데타로 축출	아들에 의해 축출 후 왕건에 귀부	후삼국 통일과 왕조 정착

세 사람 모두 신라 국가가 수행하던 군사·조세·지방통치 기능을 지역세력이 대신하면서 성장했다. 차이는 어떤 사회세력을 결합했고, 그 연합을 왕조의 장기적 제도로 어떻게 바꾸었는가에 있었다.

33. 태봉을 국가형성론으로 분석

개념	태봉 평가	근거/한계
Coercive Capacity	높음	다수 성·군현 정복, 경쟁군벌 격파.
Administrative Capacity	빠르게 상승	904년 기능별 중앙관제. 지방침투 깊이는 불명.
Fiscal Capacity	부분적 직접 단서, 전체 수준 미확정	대모산성 목간은 측정·문자행정 단서를 제공하지만 중앙 재정규모는 미확정.

21. 왕건의 포섭정책은 통일과 왕조 안정에 기여했지만 초기 고려의 호족 의존과 다수 혼인·왕자 문제를 함께 남겼다. 비교는 결과론적 우열평가가 아니라 권력공유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개념	태봉 평가	근거/한계
Military Integration	불완전	강한 장군 네트워크. 918년 집단이탈.
Political Legitimacy	초기 상승, 후기 분열	고구려·미륵 정당성의 동원효과와 후기 반작용.
Elite Incorporation	초기 강함, 후기 취약	호족·장군 포섭 후 power-sharing 갈등.
Succession Capacity	취약	왕실 내부 제거 기록과 918년 대체왕조 등장.

태봉은 폭력의 독점과 행정기구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재정의 안정성·군사통합·엘리트권력분배·승계에서 취약했다. 국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보다 어떤 국가역량이 빨리 성장했고 어떤 역량이 뒤쳐졌는가를 비교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국가형성론 재평가

새 목간 때문에 태봉의 **Administrative Capacity**와 **Written/Measurement Capacity**는 이전 판보다 한 단계 높게 평가할 근거가 생겼다. 반면 **Fiscal Capacity** 전체를 ‘높음’으로 올릴 근거는 아직 없다. 측정단위의 존재는 기록·수량관리 능력을 시사하지만, 중앙정부가 광범위하고 규칙적으로 세원을 장악했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

34. 궁예 몰락은 민중보다 엘리트연합 붕괴였는가

이 가설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결론이다. 궁예를 제거한 직접 행동주체는 농민군이나 외국군이 아니라 태봉 핵심의 장군들이었다. 정변 이후 왕건은 기존 국가기구와 인력을 상당 부분 유지했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 세력이 국가를 뒤엎었다기보다 기존 지배연합이 최고지도자를 바꿨다는 점을 의미한다.

물론 민중의 부담과 지역사회의 불만이 엘리트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백성의 지지가 크게 약화되면 장군이 왕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줄어든다. 그러나 민심은 정변을 설명하는 배경조건이고, 군사엘리트의 실제 이탈이 핵심 메커니즘이었다.

이 해석은 궁예를 복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숙청·개인왕권·재정동원 등 궁예의 선택이 지배연합을 어떻게 붕괴시켰는지를 더 정확하게 묻는다.

35. 궁예의 정신상태를 역사학적으로 다루는 법

궁예에게 편집증·정신병·광신 같은 현대 정신의학적 진단을 붙이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부적절하다. 우리는 궁예를 임상적으로 관찰할 수 없고, 남은 기록은 정권교체 뒤 작성된 서술이다. 특정 행동을 진단기준에 맞춰 소급해석하면 사료의 정치적 편향과 시대적 종교관을 모두 놓칠 수 있다.

후기의 의심은 실제 위험환경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왕건은 독자적 지역기반과 군사명망을 가졌고 실제로 정변의 수혜자가 되었다. 장군과 호족이 자체 병력을 가진 상황에서 쿠데타 위험은 상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궁예의 문제는 위협을 인식한 것 자체가 아니라 위협을 처리하는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역사학적 질문은 “궁예가 미쳤는가”가 아니라 “정보가 불완전하고 쿠데타 위험이 높은 체제에서 왜 숙청·신성화·공포라는 통치수단을 선택했고, 그것이 어떤 역효과를 냈는가”여야 한다.

36. 반사실: 궁예는 몰락을 피할 수 있었는가

반사실 분석은 예언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도구다. 궁예가 숙청을 줄이고 광평성을 통한 엘리트 참여를 유지하며, 왕건과 군부를 포용하고, 미륵왕권의 정치적 범위를 제한하고, 철원 건설과 군사동원의 속도를 조정했다면 918년과 같은 급격한 정변의 위험은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태봉의 장기생존이 곧 후삼국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백제의 군사력, 신라의 잔존정통성, 지방호족의 자율성, 정규 재정의 취약성은 계속 남았을 것이다. 또한 왕건과 같은 강력한 대리인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통제할 것인지라는 문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궁예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태봉은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다”는 명제는 상당히 plausible하지만, “궁예가 결국 통일왕조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를 넘어선다.

37. 고려 왕조가 만든 궁예

고려의 창업서사는 궁예를 왕건의 정통성을 비추는 어두운 배경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 구조는 전형적이다. 궁예의 폭정 → 민심 이반 → 충신들의 고심 → 왕건의 거듭된 사양 → 백성과 신하의 추대 → 새 왕조의 구원이라는 순서다.

이 서사에서 가장 의심해야 할 부분은 사실의 “유무”보다 사건의 도덕적 배열이다. 왕건이 궁예 휘하에서 오랫동안 승진하고 국가의 최고위직까지 지낸 사실은 축출 직전까지 태봉의 핵심 엘리트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대의 이야기는 이를 “끝까지 충성했으나 폭군이 너무 악해져 어쩔 수 없이 왕이 된 인물”로 재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역사적 궁예를 복원하려면 왕건을 악인으로 만들 필요도 없다. 쿠데타의 정치적 성격과 왕건의 뛰어난 연합관리 능력은 동시에 인정할 수 있다. 핵심은 승자의 기록을 승자의 관점이라는 이유로 폐기하지도, 그대로 믿지도 않는 것이다.

38. 역사적 궁예의 재구성

정체성	증거 강도	재구성
군사 지도자	A	독립군벌에서 중부 패자로 성장. 병력편성과 정복능력 강화.
정치 지도자	A/B	여러 지역 호족·장군을 결합하고 왕조를 창업.
국가 건설자	A	광평성·관제·도성·국호·연호로 신생국가 제도화.
종교 지도자	B	미륵·불교정치를 왕권정당성과 결합.
혁명가	B/C	신라질서를 부정하고 새 왕조를 건설했으나 사회혁명 여부는 제한적.

정체성	증거 강도	재구성
독재자/폭군	B/C	후기 권력개인화·숙청의 핵심은 가능, 세부는 후대 과장.
개혁가	B	새 관제·수도·정통성 체계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제도혁신자.
실패한 군주	A/B	918년 축출은 명백하나 고려가 태봉의 자산을 승계했다는 점에서 단순 실패로 환원 불가.

가장 강하게 확인되는 궁예의 모습은 “국가건설자이자 군사조직가”다. 폭군 이미지는 완전히 허구라고 할 수 없지만, 그보다 앞서 설명되어야 할 것은 그가 왜 그토록 빠르게 국가를 만들 수 있었는가다.

39. 궁예의 역사적 의미

궁예는 신라 붕괴의 산물이면서 고려 건국의 전제조건을 만든 인물이었다. 태봉은 신라의 골품적 중앙질서와 고려의 호족연합적 통합왕조 사이에서 새로운 관료제·수도·군사·정통성을 실험했다. 이 실험의 일부는 실패했지만 상당 부분은 고려로 이어졌다.

고구려 계승의식도 중요하다. 궁예가 사용한 고려라는 국호와 북방정통성은 왕건에게 계승되어 후삼국 통일의 정치언어가 되었다. 따라서 왕건의 성공은 궁예의 유산을 부정함으로써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산을 선택적으로 계승하고 정통성의 주체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졌다.

한국 국가형성사에서 궁예의 위치는 “패자의 역사”가 아니라 국가기능이 해체되고 다시 결합되는 전환기의 실험자다. 2023~2025년 대모산성 목간 연구는 태봉이 단지 후대 문헌 속 국가가 아니라 연호·문자·측정·제의가 작동한 물질적 행정공간을 가졌음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흥망은 강력한 군사동원만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며, 엘리트 권력분배·재정·승계·정당성이 함께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40. 궁예 몰락 Causal Map



그림 9. 궁예 정권의 성장과 붕괴 인과지도. A/B/C 표시는 연결고리의 상대적 증거강도.

인과지도에서 가장 강한 연결은 신라 말 구조위기→지방군사세력 성장, 궁예의 군벌화→영토확장, 904년 관료국가화, 왕건의 성장, 군사엘리트의 정변, 고려의 태봉 국가기구 승계다. 상대적으로 약한 연결은 경제부담이 민심에 미친 구체적 규모, 왕권강화가 어느 시점에 어떤 제도를 통해 엘리트의 참여를 축소했는지 등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의 핵심은 이미 알려진 “궁예가 잔혹했다”는 사례를 더 수집하는 데 있지 않다. 국가의 자원과 인사가 어떻게 배분되었고, 910년대에 장군·호족의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더 세밀하게 복원하는 데 있다.

41. 실패 원인 중요도별 종합

순위	요인	판정
1	지배엘리트 연합 붕괴	가장 직접적이고 구조적으로 결정적. 실제 축출주체가 핵심 장군.
2	왕권강화의 제도화 실패	권력집중을 예측 가능한 법·관료제보다 개인권위·숙청과 결합.
3	왕건이라는 대체 지도자의 존재	엘리트가 정권교체 후 국가붕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
4	숙청·공포의 역효과	충성보다 선제적 이탈의 유인을 높였을 가능성.
5	재정·행정 통합의 지연	영토확장과 수도·군대·관료제의 속도를 안정적 국가역량이 따라가지 못함.

이 순위는 도덕적 책임의 순위가 아니라 918년 정권붕괴를 설명하는 인과적 중요도의 순위다. 궁예 개인의 선택은 2·4번에 크게 작용했지만, 1·3번의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같은 수준의 숙청이 즉시 왕조교체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2. 기존 통설 vs 수정주의적 해석

쟁점	통상적 이미지	수정주의적 분석
궁예의 등장	난세의 도적	국가붕괴 속 정치기업가
군사력	잔혹한 정복	조직·편제·연합능력
태봉	일시적 반란국	고려의 중요한 제도적 전단계
미륵	광신	메시아니즘·신성왕권·동원이념
관심법	초능력적 독심술	종교·정보·감시·정치퍼포먼스의 복합체
철원	기이한 수도	왕권독립과 계획도성
왕건	폭군을 구한 충신	태봉 내부에서 성장한 대체 권력중심
918	민심에 따른 혁명	군사엘리트 쿠데타를 통한 왕조교체
고려	태봉과 단절	태봉의 관료·군사·정통성 자산을 선택적으로 승계

수정주의는 궁예를 성군으로 복권하는 작업이 아니다. 도덕평가를 구조분석으로 바꾸고, 후대 사료의 정치적 편향을 통제하면서도 실제 숙청과 권력개인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9월의 표준서술과 본 연구의 차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봉」 항목(최종수정 2026-09-03)은 궁예가 미륵신앙에 근거한 신정적 전제정치를 추구했고, 그 결과 민심이 이반하여 왕건의 정변으로 멸망했다고 요약한다. 본 연구는 이 설명을 폐기하기보다 민심 이반을 배경조건으로 두고, 실제 정권교체의 직접 메커니즘을 군사엘리트의 집단이탈과 대체 지도자 왕건의 존재에서 더 구체적으로 찾는다.²²

43. 최종 핵심 질문 20개

1. 궁예는 어떻게 성공했는가? 신라 국가붕괴가 만든 기회를 군사조직·지역세력 포섭·고구려 계승정통성으로 실제 권력으로 전환했다.
2. 가장 잘한 것은? 정복된 군사연합을 광평성·관제·왕도·국호를 갖춘 국가로 전환한 것이다.
3. 가장 중요한 구조적 강점은? 서로 다른 지역의 호족과 군사엘리트를 결합할 수 있는 개방적 연합구조였다.
4. 언제 문제가 본격화됐는가? 911년 태봉체제 이후 왕권개인화가 강해지고, 914~915년경 왕건 견제와 왕실위기가 표면화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궁예 개인의 잘못은? 후기 숙청·권력개인화·엘리트 관리 실패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6. 제도적 문제는? 군벌연합을 예측 가능한 권력공유·통합군·재정·승계제도를 가진 국가로 완전히 바꾸지 못했다.
7. 호족과 군부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궁예를 제거한 행위주체가 핵심 군사엘리트였다.
8. 미륵불·관심법 기록은? 미륵왕권의 핵심은 상당히 신뢰 가능하지만 관심법의 초자연적 세부는 정치적·문학적 가공을 고려해야 한다.

1차사료 창 - 관심법 서사(사료의 요지·의역)

궁예가 왕건에게 역모 혐의를 추궁하면서 자신이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한다.

『고려사』 태조세가, 왕건 심문 일화. 아래 문장은 직역 인용이 아니라 사료의 요지이다.

이 표현은 왕건 중심의 창업서사 속에 전해진다. 실제 종교신념·심문·정보망·정치적 연출이 뒤섞였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9. 폭정은 사실인가 선전인가? 둘 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후기 강압통치의 핵심이 있었고 승자 사료가 확대·도덕화했다.
10. 왕건의 성장은 어떤 위협이었나? 지역기반·수군·전공·중앙행정경력을 모두 가진 완성도 높은 대체 지도자의 출현이었다.
11. 918년은 무엇인가? 군사엘리트 쿠데타를 통한 왕조교체가 가장 정확하다.

²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봉」, 집필 2021, 최종수정 2026-09-03. 현행 항목은 신정적 전제정치→민심 이반→왕건 정변의 설명구조를 유지한다.

12. 태봉은 궁예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생존했을까? 정책수정과 권력공유가 가능했다면 장기생존 가능성은 있었지만 통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13. 견훤과 궁예 실패의 공통점? 둘 다 창업에는 성공했으나 내부연합의 장기안정에 실패했다. 궁예는 군사엘리트, 견훤은 왕실후계 분열이 더 직접적이었다.
14. 왕건이 달랐던 핵심은? 호족을 즉각 제거하지 않고 혼인·관직·포상으로 제도 안에 묶는 coalition management 였다.
15. 직접 원인과 근본 원인은? 직접 원인은 군사엘리트 정변과 왕건 추대, 근본 원인은 왕권과 엘리트연합의 권력 분배 붕괴다.
16. 가장 중요한 5가지 원인은? 지배연합 붕괴, 왕권강화의 제도화 실패, 왕건의 존재, 숙청·공포, 행정·재정 통합의 지연.
17. 대중적 인식의 가장 큰 오해? “궁예는 미쳐서 나라를 망쳤다”는 단일 심리원인론이다.
18. 현대 역사학은 어떻게 재평가해야 하나? 성군/폭군 논쟁보다 창업자가 왜 안정적 제도설계자로 전환하지 못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19. 한국 국가형성사에서 위치는? 신라 해체와 고려 통합 사이에서 관료제·정통성·수도·연합정치를 실험한 핵심 전환기 국가의 창업자다.
20. 한 문장으로? 궁예는 신라 붕괴가 낳은 지방군사연합으로 국가를 만들었지만, 그 연합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해 자신이 키운 군사엘리트와 왕건에게 권력을 빼앗겼다.

44. 최종 결론

궁예는 실패한 인물이지만 실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는 신라 말의 국가붕괴 속에서 군사력과 지방 세력, 종교적 정당성을 결합해 중부지역에 새로운 왕조를 세웠고, 관료기구와 계획수도를 구축했다. 이 정도의 국가건설을 이루지 못한 군벌이 훨씬 많았다는 점에서 그의 창업능력은 분명히 높았다.

그러나 국가의 탄생과 국가의 지속은 다른 문제였다. 정복을 가능하게 한 자율적 장군과 호족, 카리스마적 권위, 전쟁동원은 평시의 관료제·재정·권력공유·승계질서와 긴장했다. 궁예는 그 긴장을 제도적 협상보다 개인왕권·신성화·숙청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핵심 엘리트에게 왕을 교체하는 편이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는 판단을 만들었다.

왕건은 이 구조에서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었다. 궁예가 발탁한 장군이며, 태봉의 군사·행정·지역네트워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정권교체 뒤 기존 국가기구를 활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려의 탄생은 태봉의 완전한 파괴라기보다 태봉 국가의 지도자와 정통성, 지배연합 규칙을 바꾸는 과정이었다.

최종 한 문장

궁예는 신라 말의 붕괴를 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국가를 가능하게 한 엘리트연합을 지속 가능한 권력질서로 전환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세운 국가의 핵심 엘리트에게 축출된 창업군주였다.

부록 0. 2023-2026 물질자료 감사표

자료	연대/발굴	확정성이 높은 정보	해석상 주의
대모산성 1호 목간	916년 명문 / 2023 공개	정개 3년, 문자기록, 대릉 관련 제의맥락	일부 인명·문구는 후속 재판독에서 변동
추가 목간 4점	2024 출토	수량·측정단위와 문서적 기록의 존재	개별 목간의 정확한 연대·태봉 귀속은 지속 검토
2025 이두·문자 연구	2025 발표	10세기 문자생활과 향찰/이두 계열 표기 논의 확대	문서의 목적·독법에 학설 차이 존재
철원도성 연구	현대 지형·고고학	계획도성·왕도 구축의 물질적 가능성 강화	DMZ 접근제약으로 전면발굴 부족
2025 백제시대 목간 4점	5세기경 / 2025 출토	대모산성이 다시기 점유지였음을 보여주는 독립 자료	태봉 자료와 출토층위·연대·문자양식을 반드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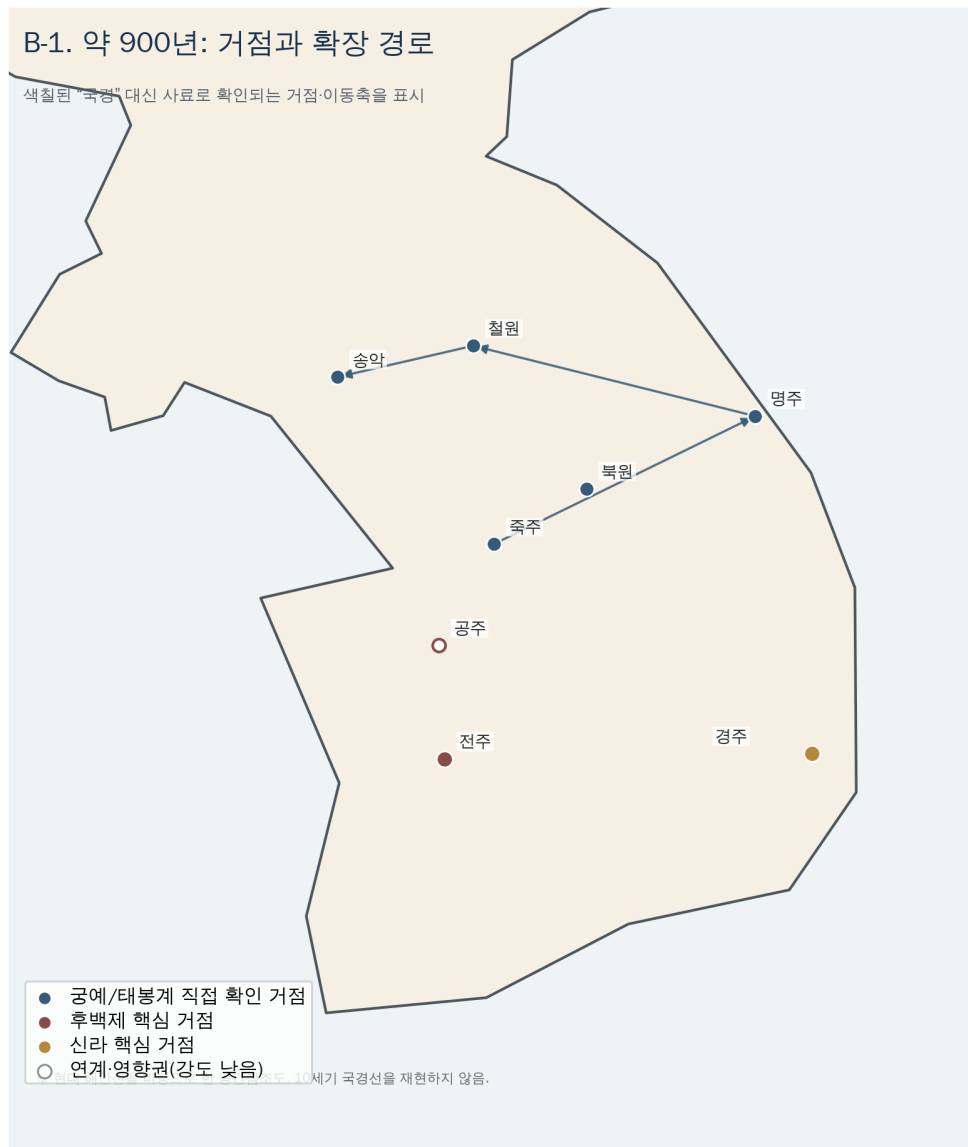
이 표의 목적은 ‘새 자료가 공예를 복권한다’는 데 있지 않다. 문헌사료가 승자서사에 편중된 연구구조에서 동시대 물질자료가 제공하는 독립적 검증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데 있다.

부록 A. 궁예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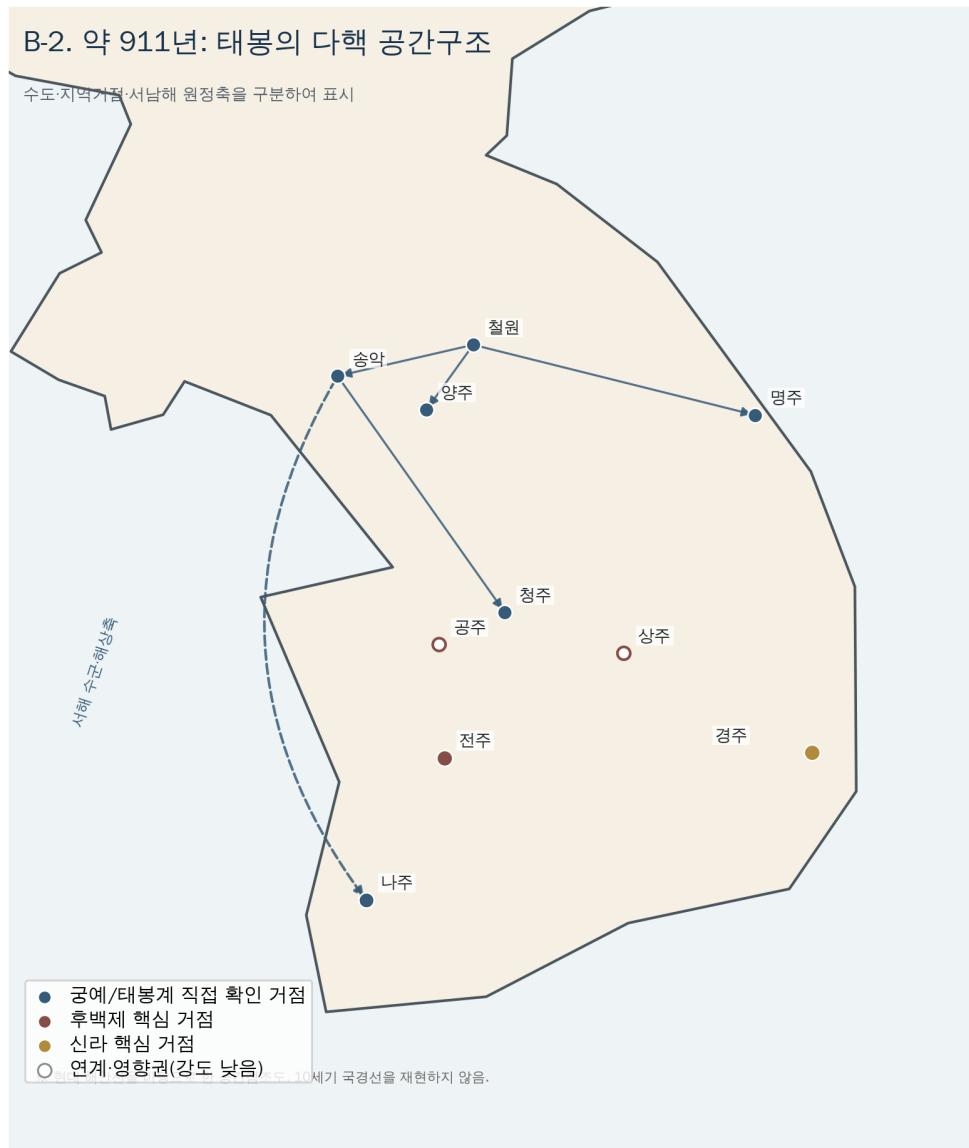
시기	사건	의미	증거
9세기 후반	신라 왕족 출생 전승	정통성 자원 가능성	C
10여 세	세달사 승려생활	불교·네트워크 경험	B/C
891 전후	기원 세력 참여	무장세력 진입	B
892	양길 휘하	독자 지휘 경험	A/B
894	명주 진입, 3,500명·14부	조직화된 독립군벌	A
895-896	한주·철원·패서 확장	중부권력 성장	A/B
896	왕릉·왕건 귀부	송악·해상기반 편입	B
897-899	양길 격파	독립패권 확립	A/B
901	왕 칭함, 고려	왕조 창업	A/B
903	왕건 나주 진출	수군·서남해 전략	A/B
904	마진·중앙관제	군벌→국가 전환	A
905	철원 중심체제	왕도·왕권 강화	A/B
911	태봉	독자 왕조이념 강화	A
913	왕건 시종	왕건 중앙권력 정점	A
914	연호 정개(政開)	독자 연호 사용	A
914	왕건 수군지휘 복귀	건제/전략배치 논쟁	B/C
915	강비·왕자 제거 기록	왕실승계·엘리트 위기	B/C
916	대모산성 목간의 '정개 3년'	연호·문자기록의 동시대 물질증거	A
918.6	홍유 등 정변, 왕건 즉위	군사엘리트 왕조교체	A/B
918.6	궁예 도주·사망	태봉 최고권력 교체	B

부록 B. 후삼국 세력지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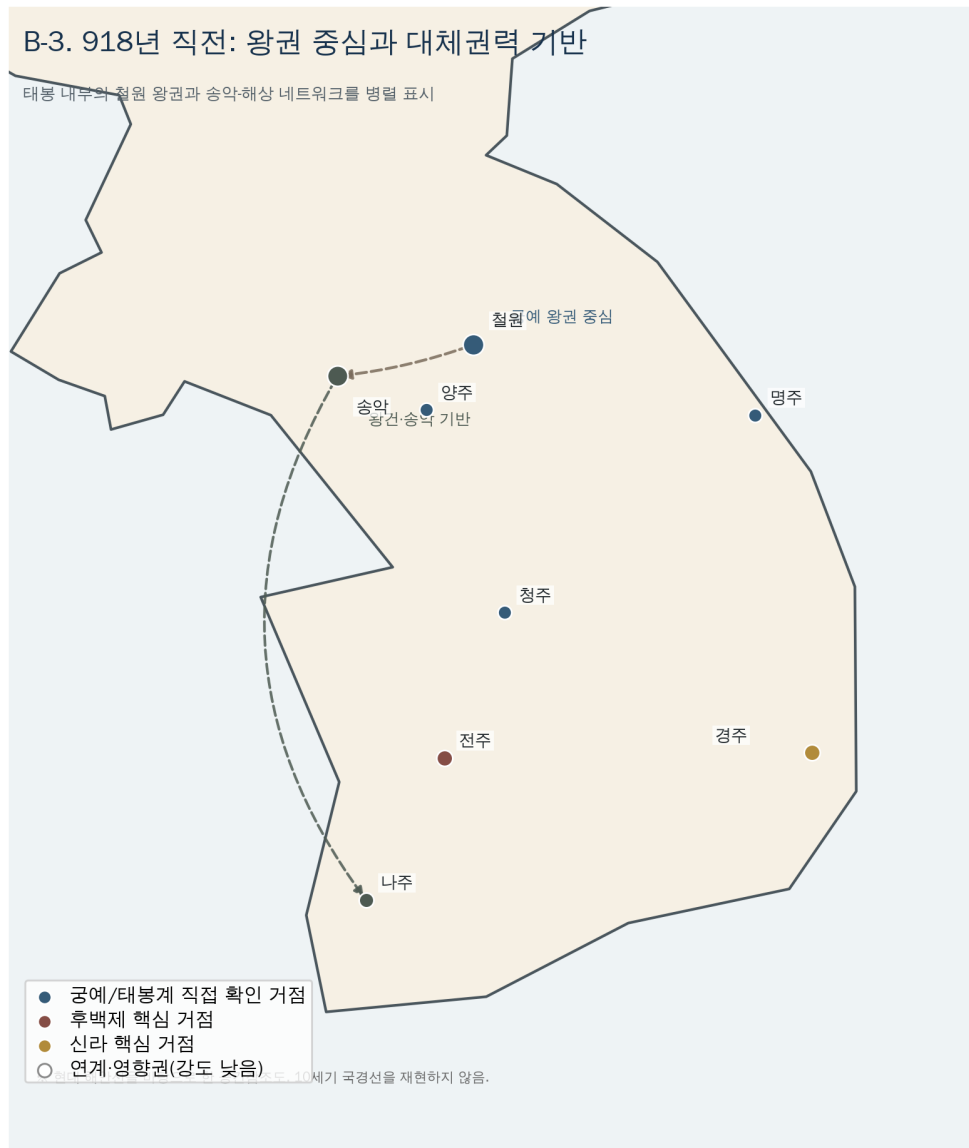
지도는 10세기의 불확실한 경계를 현대 국가의 폐쇄적 국경선처럼 색칠하지 않는다. 대신 사료로 직접 확인되는 군현·수도·지역거점, 군사 이동 또는 해상 연결축, 그리고 연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서로 다른 기호로 표시한다. 현대 해안선과 좌표는 공간참조를 위한 바탕일 뿐, 10세기 행정경계의 복원이 아니다.



약 900년: 현대적 국경색칠을 피하고, 사료로 확인되는 거점·확장 경로와 연계 가능성을 구분한 공간참조도.



약 911년: 태봉의 수도·지역거점·서남해 수군축을 표시한 증거기반 공간참조도. 영토의 정확한 경계를 뜻하지 않는다.



918년 직전: 철원 왕권과 송악-해상 네트워크의 병존을 보여주는 공간참조도. 점·연결선은 사료의 강도와 관계를 설명하는 분석표현이다.

부록 C. 주요 인물 관계도와 엘리트 표

인물	기반	태봉에서의 역할	918년 이후
왕건	송악 왕씨·호족·해상망	장군·수군지휘·나주공략·시중	고려 태조
왕릉	송악 호족	궁예 귀부, 왕건 성장 기반	왕건 가계 정통성
홍유	군사엘리트	정변 주도	1등 공신
배현경	군사엘리트	정변 주도	1등 공신
신승겸	군사엘리트	정변 주도	1등 공신·후일 공산전투 전사
복지겸	군사엘리트	정변 주도	1등 공신
강씨	왕비·왕실연합	후기 왕실갈등의 중심 기록	915년 제거 전승

부록 D. 궁예·견훤·왕건 비교표

항목	궁예	견훤	왕건
출신/기반	승려경력·군사집단	군인·서남부 기반	송악 호족
군사력	중부 육상정복, 수군 활용	강한 육군	육군+수군
호족관리	초기 포용, 후기 긴장	지역기반+왕실갈등	포섭·혼인·관직
연합정치	초기 강점	지역세력 결합	가장 지속적으로 활용
왕권관	후기 신성·개인화	군사적 왕권	연합왕권→점진 강화
종교정책	미륵·왕즉불 성격	불교 후원	불교 후원·훈요
인재등용	왕건 등 적극 발탁	군사인재 중심	공신·호족 폭넓게 편입
숙청	후기 다수 기록	왕실 내분	갈등·반란 있으나 포섭 병행
혼인정책	자료 제한	왕실후계 갈등	광범위한 혼인동맹
지방통합	중앙집권 시도	서남부 중심	점진적 통합
경제정책	도성·전쟁동원 부담 추정	전쟁국가 재정	태봉기구 계승 후 안정화
정통성	고구려+미륵+태봉	백제	고려+통일
외교/전략	신라·후백제 경쟁	신라 공격, 고려 경쟁	후백제·신라 포섭 병행
권력승계	왕실위기 기록	신검 정변	왕조계승 성공하지만 왕자 다수 문제

부록 E. 궁예 몰락 원인 매트릭스

원인	단기효과	장기효과	증거
속청	잠재 반대자 제거	엘리트 생존불안·정보왜곡	B/C
미륵왕권 개인화	왕권 카리스마 강화	정책갈등의 충성/반역화	B/C
왕건 성장	군사성과 확대	대체지도자 형성	A/B
철원·전쟁 동원	수도·군사능력 강화	재정부담 가능성	B/C
호족 자율성	빠른 팽창	중앙집권과 충돌	A/B
왕실승계 위기	잠재 경쟁 제거	왕조 미래 불확실	B/C
4장군 결집	정변 실행	왕조교체	A

부록 F. 사료 신뢰도표

사료	시기	가치	핵심 한계
『삼국사기』	1145	가장 체계적인 궁예전·연대·제도	고려 관찬, 왕건 정통성 맥락
『삼국유사』	13세기	불교·이설·기억전승	설화성과 후대성
『고려사』	1451	태조 즉위 전후 상세, 고려 구자료 이용	태조 창업정통성+조선 편찬
『고려사절요』	1452	편년체 보완	매우 후대
『제왕운기』	1287	계보·이설	역사시, 문학적 구성
금석문	동시대 포함	동시대 지방·불교 맥락	궁예 직접자료 희소
철원 고고학	현대 발굴/지형분석	문헌과 독립된 물질자료	DMZ로 조사 제한
대모산성 목간	916년 명문 / 2023-24 발굴	연호·문자·측정·제도의 직접 물질자료	개별 판독·문서기능·일부 목간의 연대는 논쟁
지방설화	후대	지역기억과 대안전승	사실재구성에는 낮은 신뢰

부록 G. 주요 학설 비교표

쟁점	해석 A	해석 B	본 연구
왕족설	실제 왕실서자	후대 정통성 구성	가능성은 열어두되 확정 불가
국호 변경	자의적 변덕	국가정체성·왕권의 단계 변화	변화지표는 인정, 어원 단정 금지
광평성	왕의 행정부	호족연합의 권력공유 기구	기능분화 정부 + 연합정치 가능성
미륵불	광신·이상행동	메시아니즘·신성왕권	정치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
관심법	독심술 신앙	정보·감시·정치퍼포먼스	복합적 통치기술 전승 가능
918년	민심혁명	군사엘리트 쿠데타	후자가 더 설명력 높음
고려와 태봉	완전한 단절	제도적 연속성	상당한 연속성

부록 H. 핵심 용어사전

국가형성(State Formation) - 폭력·재정·행정·정당성·영토통제가 지속 가능한 국가기구로 결합되는 과정.

국가역량(State Capacity) - 중앙권력이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며 군사를 동원하고 지방에 정책을 관철하는 능력.

지배연합(Elite Coalition) - 군주·관료·장군·호족 등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엘리트의 권력분배 구조.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 - 지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게 만드는 역사·종교·성과·제도의 근거.

Fiscal Capacity - 국가가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취·관리·지출하는 능력.

Power-sharing - 국왕과 엘리트가 관직·재정·군사·정책결정 권한을 나누는 방식.

Principal-Agent Problem - 국왕이 유능한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할수록 대리인이 독자적 권력기반을 갖는 문제.

Coercive Capacity - 국가가 군사력과 강제력을 조직·집행하는 능력.

Dynastic Legitimacy - 왕조의 혈통·역사·종교적 계승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통성.

Historical Memory - 후대 사회와 국가가 과거 인물·사건을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방식.

부록 I. 1차 사료 및 온라인 원문 안내

- 『삼국사기』 권50 공예전 출생기사 - [온라인 원문](#)
- 양길 휘하 기사 - [온라인 원문](#)
- 명주 3,500명·14부 편제 - [온라인 원문](#)
- 901년 고려 건국 관련 - [온라인 원문](#)
- 904년 중앙관제 - [온라인 원문](#)
- 미륵·석총 관련 - [온라인 원문](#)
- 왕건 시중 관련 - [온라인 원문](#)
- 강비·왕자 관련 - [온라인 원문](#)
- 918년 정변 『고려사』 - [온라인 원문](#)
- 왕건 역모 추궁 일화 - [온라인 원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URL 구조와 공개범위는 향후 변경될 수 있다. 출판 인쇄본에서는 사료명·권차·기사명을 기본 인용단위로 삼고 URL은 보조 접근경로로 사용한다.

부록 J. 현대 주요 연구논문·학술서 Bibliography

J-1. 단행본

- 조인성, 『태봉의 궁예정권』, 푸른역사, 2007.
- 이재범, 『후삼국시대 궁예정권연구』, 해안, 2007.
- 김용선, 『궁예의 나라 태봉』, 일조각, 2008.

J-2. 학술논문

- 이재범, 「궁예·왕건정권의 역사적 연속성에 관한 고찰」, 『사림』 24, 2005, 101-128.
- 이재범, 「궁예정권의 칠원정도 시기와 전제적 국가경영」, 『사학연구』 80, 2005.
- 이재범, 「후삼국시대 궁예정권의 연구」, 『군사』 62, 2007, 95-130.
- 박광연, 「동아시아의 왕즉불 전통과 미륵불 궁예」, 『사학연구』 110, 2013, 87-122.
- 이재범·이광섭, 「궁예의 불교사상에 관한 고찰」, 『신라사학보』 31, 2014, 185-223.
- 강봉룡, 「왕건의 제해권 장악과 고려 건국 및 후삼국 통일」, 『역사학연구』 75, 2019, 35-60.
- 심재연, 「일제강점기 태봉국 칠원성 조사와 봉선사지」, 『문화재』 52-1, 2019, 258-271.
- 허의행·양정석, 「태봉 칠원도성의 고지형과 구조 분석 연구」, 『헤리티지: 역사와 과학』 54-2, 2021, 38-55.
- 정성권, 「태봉의 불교조각과 칠원 동승을 마애불」, 『문화사학』 56, 2021, 29-67.
- 홍창우, 「궁예의 (後)高麗 국호 제정과 ‘一統三韓’의 지향」, 『신라사학보』 59, 2023, 275-315. [\[DOI\]](#)
- 백중오, 「한국고대 성곽문화의 결절지, 양주」, 『선사와 고대』 74, 2024, 49-87.
- 이재환, 「양주 대모산성 목간1의 인물 형상에 대한 검토」, 『木簡과 文字』 33, 2024, 215-238.
- 김병조·고재용, 「양주대모산성 원형집수시설 출토 목간-양주대모산성 13차 발굴조사」, 『木簡과 文字』 32, 2024, 219-238. [\[KCI\]](#)
- 손환일, 「양주 대모산성 新출토 목간 자료 소개」, 『신라사학보』 63, 2025, 233-240. [\[DOI\]](#)
- 김병조·고재용, 「양주대모산성 원형집수시설 출토 목간 - 양주대모산성 14차 발굴조사 -」, 『木簡과 文字』 34, 2025, 247-263. [\[DOI\]](#)
- 권인한, 「태봉국의 이두를 찾아서 - 양주 대모산성 목간1을 중심으로 -」, 『木簡과 文字』 35, 2025, 141-170. [\[KCI\]](#)
- 김병희, 「건국 이전 궁예의 세력 형성 및 확장에 대한 재검토」, 『신라사학보』 65, 2025, 1-40. [\[DOI\]](#)
- 홍창우, 「궁예정권과 ‘지방’과의 관계 문제 - 청주·나주 관련 연구성과의 정리를 중심으로 -」, 『신라사학보』 65, 2025, 41-75. [\[DOI\]](#)
- 조인성, 「태봉역사문화권 설정을 위한 제언」, 『신라사학보』 65, 2025, 203-212. [\[DOI\]](#)

J-3. 공공기관·발굴 및 기준자료

- 양주시,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국 관련 목간 출토」, 2023-11-29. [\[연구/원문 링크\]](#)
- 양주시, 「양주시, ‘양주대모산성’ 지난해에 이어 태봉 관련 목간 출토」, 2024-11-28. [\[연구/원문 링크\]](#)
- 양주시, 「양주 대모산성, 지난해에 이어 국내 가장 오래된(最古) 목간 출토」, 2025-11-21. [\[연구/원문 링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봉」, 최종수정 2026-09-03. [\[연구/원문 링크\]](#)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고려사』 관련 원문 및 역주.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 권40 잡지9 외관 「후고구려 관제」. [\[연구/원문 링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광평성」: 태봉·고려 초기 광평성의 기능 및 해석 논쟁. [\[연구/원문 링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봉성」: 904년 마진 18관부·9관등 개관. [\[연구/원문 링크\]](#)

J-4. 보도자료·언론기사

- 연합뉴스, 「대모산성 출토 유물 1천여 점 양주시로 이관」, 2026-06-17. [\[연구/원문 링크\]](#)

J-5. 온라인 연구 접근경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부록 K. 추가 연구가 필요한 쟁점

- 철원도성의 본격적인 고고학 조사: 궁성·내성·외성의 정확한 시기와 기능, 인구와 물류체계 복원.
- 『삼국사기』 궁예전의 원사료 계통 분석: 고려 초기 기록층과 12세기 편집층을 얼마나 구분할 수 있는가.
- 태봉 엘리트 prosopography: 장군·관료·호족의 출신지역, 혼인, 관직, 918년 이후 경력의 집단분석.
- 태봉 재정국가 연구: 조세·공물·노역·군량·수도건설 비용을 간접자료와 비교사로 복원.
- 왕건의 군사·경제 네트워크: 송악·서해·나주 연결망이 태봉 중앙정치에 미친 효과.
- 궁예의 불교정치와 기존 승단의 관계: 석총 전승을 포함한 갈등과 협력의 실체.
- 918년 정변의 미시연대: 군사부대의 이동과 궁성 장악, 궁예 도주경로의 지역전승 교차검증.
- 후백제와 태봉의 비교 국가역량 연구: 왜 두 창업국가가 모두 내부 승계/엘리트 문제를 겪었는가.
- 대모산성 출토품의 재정리와 보존과학: 2026년 6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1990년대 대모산성 발굴 출토 국가귀속유산 1천여 점을 이관받아 정밀 조사와 보존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군은 곧바로 태봉기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대모산성의 시대별 점유와 태봉기 층위 판별을 정교화할 잠재력이 있다.²³

23. 연합뉴스, 「대모산성 출토 유물 1천여 점 양주시로 이관」, 2026-06-17. 이관 대상은 1990년대 1-5차 발굴 출토 국가귀속유산으로 보도되었으며, 향후 정밀 조사와 보존처리가 추진된다.

출판 감사 체크리스트

항목	조치	상태
한글 글리프	UnBatang/UnDotum 한국어 서체군으로 한글·한자 통합	완료
폰트 임베딩	UnBatang/UnDotum Regular/Bold 원본 font program 전체 포함	완료
목차	자동 페이지 번호 + PDF 북마크	완료
웹사이트	작성자 홈페이지 및 주요 원문 URL 클릭 가능	완료
사료비판	사실/논쟁/전설 및 A-E 증거등급 분리	완료
지도	900-911-918 증거기반 공간참조도: 거점·이동축·연계 가능성을 구분하고 현대적 국경선 소급을 회피	완료
권력관계도	궁예-광평성-왕건-군사엘리트-호족 구조도	완료
인과지도	주요 연결고리별 증거등급 표기	완료
생성 이미지	모든 상상 이미지에 비실사·비고고학 복원 캡션	완료
참고문헌	단행본·학술논문·공공기관/발굴자료·언론·온라인 접근경로 분리	완료
기술 QA	최종 PDF 렌더·폰트·링크·페이지 검사	완료
Unicode	NFKC 정규화 + 단일 한국어 CJK 서체군 사용; PDF 추출 QA에서 Kangxi Radical/호환한자 0건, 대체문자 0건	검증 완료
각주	핵심 쟁점에 페이지 하단 scholarly footnotes 20개(중복 출전 통합)	완료
접근성	PDF/UA-1 프로파일 + live text + ko-KR + 구조태그 + TH scope + Alt Text; 내부 구조 QA	구조 QA 완료
물질자료	2023-2024 태봉 목간, 2025 백제시대 목간 4점·재판독, 2026 조사동향 반영	완료
폰트 구조	UnBatang/UnDotum 4개 서체의 전체 font stream을 원본 TTF와 SHA-256 비교 검증. PDF 내부 리소스명에 subset-style prefix가 남을 수 있으나 font program 자체는 전체 내장.	완료
제작 잔여오류	표지 stray text 제거, 1.3 heading hierarchy 교정, 중복 각주 통합, DOI/영구링크 보강	완료
제도사 복원	904년 마진 18관부·9관등 명칭 전수 복원; 기능은 직접기록과 비교추정으로 분리, 태봉기 9관품 재판과 구분	완료
시대명칭 정밀화	904년 관제를 당시 국호 마진으로 명시하고 911년 태봉 개칭과 구분	완료
Pinpoint citation	핵심 논쟁에 권·조·연월일·한국사DB record ID 수준의 위치 인용 보강	완료
학술 메타데이터	Dublin Core·Highwire citation meta·Schema.org Book JSON-LD·rights·package-relative canonical 삽입	완료

항목	조치	상태
장기보존	동일 live-text HTML에서 배포용 PDF/UA-1과 별도 PDF/A-4u archival copy 생성; 프로파일·텍스트·폰트·구조·렌더링 내부 QA	내부 QA 완료 / 외부 독립 validator 인증은 별도

배포용 PDF는 PDF/UA-1 프로파일로, 별도 보존본은 PDF/A-4u 프로파일로 동일한 live-text HTML 마스터에서 출력했다. 내부 렌더링·텍스트·폰트·링크 QA와 XMP 프로파일 식별정보를 확인하였으며, 제3자 인증기관의 공식 적합성 인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권장 최종판은 HTML 의미구조를 보존한 live-text PDF로 제작한다. WeasyPrint PDF/UA-1 프로파일과 -full-fonts 옵션을 사용하며, UnBatang/UnDotum 전체 font program 포함, 문서언어(ko-KR), 표 scope, 이미지 대체텍스트, 북마크, 링크, 검색·복사 가능성을 사후 검사한다. PDF/UA 프로파일 적용과 내부 구조 QA는 외부 인증기관의 별도 적합성 인증을 뜻하지 않는다.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

© 2026 코리아베스트 · The American 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HTML의 canonical 및 citation URL은 배포 패키지 내부 상대경로로 지정했으며, 실제 웹 게시 시 해당 공개 경로를 기준으로 해석된다.